

언약궤 기도

내밀한 기도의 세계로 통하는 길,
성령이 가르쳐주신 언약궤의 기도법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목차 CONTENTS

- 제 1 부 언약궤의 정체 23
- 제 2 부 언약궤로 들어가리라 90
- 제 3 부 성막기도 체험사례 224

그 날도 실패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날처럼 여전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고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지 말거라”

나는 직감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성을 하신 분은 성령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옷장 안이었고 그곳엔 나 외엔 다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목소리는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매우 선명하고 강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권세가 있었으며 조금도 거부하거나 무시할만한 의지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실망한 마음으로 옷장 문을 열고 나와야 했습니다. 매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말씀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거나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분을 채우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때로 기도하는 것을 빼먹은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게 임했으며 그날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땐 기쁘거나 감격스럽기보다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령님은 나의 질문에 아주 빠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때의 기분을 어찌 자세히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들라면 그것은 ‘경외함’이었습니다. 함부로 들쭉거리려는 기쁨으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하고 외치면서 감격하며 호들갑을 떨만큼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숭고하고 거룩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더러움도 용납할 수 없는 정결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엄숙했으며 너무도 조용하고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행여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내일은 못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성령님께 여쭙보았습니다.

“성령님! 제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쩌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후 내 뱉는 첫 번째 질문치고는 너무 당돌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돌한 질문에 불구하고 성령님은 너무도 편안하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겠노라. 무엇을 듣고 싶은 것이냐?”

나는 알고 싶은 것은 모두 다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로 아내에 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너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습니다. 먼저 장모님과 장인어른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네 장인어른은 세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장인어른은 남보다 건강할 것이니라. 저가 말에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니라.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니라. 저의 손에 치유의 능력이 더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내도 물었습니다. 성령님은, “네 아내가 앞으로 5년 후에 사람들에게 불리워질 것이니라. 그 일을 위해 준비하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이었지만 성령님은 한결같이 구체적이고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질문이 끝나자 나는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해야 하며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성령님은 “네가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니라. 너의 사역을 통해서 30년 안에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이니라. 너는 성령의 불을 전할 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는지 제 다리에 쥐가 날 정도였습니다. 꽤 긴 시간이 흘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기도를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제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성령님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옷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아내가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마도 기도가 길어지니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나 봐”

아내는 나의 얼굴을 뚜렷이 쳐다 봤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의 말을 그대로 믿어 주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 나의 말에 아내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

성령님과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님과의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당시 나는 옷수선을 위해 6~7개의 세탁소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세탁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아내가 옷수선 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내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세탁소로부터 옷을 가지고 오면 곧바로 재단을 하고 수선

내역 별로 옷을 나눠서 함께 옷 수선을 했습니다. 나는 주로 빨리 할 수 있는 헴(Hem)이나 커프(Cuffs), 허리(Waist) 등을 맡았습니다. 보통 매일 20벌에서 30벌 정도를 수선 했는데 많을 때는 50벌 이상을 해야 했습니다.

옷수선은 매일 이뤄져야만 했습니다. 다른 수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세탁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세탁소 주인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거의 3시간 가량을 운전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3시간도 지루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운전이었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것을 거의 3년 동안 했으니 지겨웠을 것도 같은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그 시간 밖에는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남자 아이만 셋을 키우다 보니 늘 시끄럽고 집안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것이 마음 부담은 적었습니다.

원래 운전을 좋아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그 시간이 황금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오직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겐 너무나 좋았습니다. 차를 타면 곧 바로 성령님을 불렀습니다.

“성령님, 제가 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고 곧바로 내 말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다윗아”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시간에 시간을 거듭하면서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많은 것들을 여쭙어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물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언약궤 기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후 나와 아내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언약궤로 들어가거라”

튼금없이 언약궤로 들어가라는 성령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로 다

가을 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성령님께 여쭙었습니다.

“성령님, 언약궤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언약궤로 들어가야만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기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약궤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기도입니다. 언약궤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아내도 언약궤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기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언약궤기도는 나와 아내에게 큰 능력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훈련

언약궤기도를 통해서 아내와 나의 기도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잠에서 깨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옷장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열기는 뜨거

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 있을 땐 나는 침대 옆에서 아내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고 능력이 커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내가 먼저 옷장을 차지할 때면 아내가 또 그렇게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도 않았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수개월이 지났을 때까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한번도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였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의 나이는 6살 3살 그리고 1살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로만…… 그런데 그렇게 왕가닥인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를 위해 스스로 깨어나지 않고 참아줬다는 것이 성령님의 참견하심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언약궤기도를 하면서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범벅 된 회개였습니다. 한두 번의 회개도 아니고 매일 눈물로 범벅 된 회개였습니다. 매일 그렇게 진한 회개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가지 증상들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느끼는 증

상들에 대해 성령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일어난 증상과 그것들에 대한 성령님의 대답을 자신의 일지에 고스란히 적어냈습니다.

한동안 아내는 기도 중에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소리였습니다. 옆집이나 우리 집이나 그런 소리를 내는 기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 계속적으로 아내는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소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은 아내로 하여금 마귀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고 그러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잖아 아내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의 임함

아내의 기도가 날이 갈수록 능력의 기도로 변할 때나의 기도 역시 능력을 더해갔습니다.

그날 기도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예측도 못한 채 여느 날과 똑 같이 옷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나는 성령님께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성령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간구, 회개, 찬양, 방언을 통해 언약궤기도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기도함에 있어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언약궤기도만 하라는 적도 많기 때문입니다. 꼭 방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실제로 나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성령님께 기도를 인도해 주시라고 부탁 드리었고 성령님은 다른 날과 같이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내 몸이 큰 불에 휩싸인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덥고 뜨거웠던지 이대로 얼음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얼음을 녹여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뜨거움 때문에 내 몸은 갑자기 땀을 냅니다. 마치 몸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대략 5분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5분을 통해 그렇게 강한 불이 임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고나니 그 불이 얼마나 큰 능력의 불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임한 성령님의 불은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게 임한 성령님의 불은 잠재하고 있는 은사를 불태우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의 불로 인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차례의 안수로 인해 저들의 손에도 나와 똑같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안수 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본 환상을 해석하였습니다.

성령님의 불은 중보기도자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중보기도 제목을 듣고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할 때 환상이 보이고 기도 중에 예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껏 사람의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했는데 성령님의 불은 그 말이 얼마나 잘못 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불은 사람의 기질까지도 송두리째 변화를 시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불을 통해서 교만이 꺾이고 스스로 겸손의 자세로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과 15년간 각방을 썼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몸을 만지기만 하면 소름이 끼치고 마귀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그 여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남편에게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남편과 신앙적인 대화까지 나누며 합방하기를 심히 원하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불이 전해지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체험이 느껴지고 저들의 작은 손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전해졌습니다.

성령님의 불은 질병을 치유하였습니다. 안수하는 사람에게 환자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함께 병자와 안수자가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흔한 증상이었습니다. 안수자는 이러한 느낌으로 병자를 성령님의 불로 치유하였으며 저들은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님의 불이 닿는 곳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귀가 도망치며 빈자리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도망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는 글

성령님은 음성을 들려 주시는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성령의 불’에 대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이곳의 글을 읽는 것이 공연한 시간낭비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글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

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듯이 이곳의 글 또한 성령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비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경은 한 점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글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곳의 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들로 이곳의 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말씀이 옳고 그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접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은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의 글은 너무도 분명하고 자세히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느냐고 물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 너무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 역시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얻기 위해선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혹

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사랑을 이해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된 기간일 때 가능한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한번도 부모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어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얼굴을 보지 않았어도 잘만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애뜻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이 책은 당신에게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록 글 속에 방법이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리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헛수고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할 때 단순한 지식전달을 위한 글로 읽는다면 당신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영성훈련’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 훈련에 참여할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누구도 그 훈련에 당신

을 끼어 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영성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은 함께 하실 것이지만 영성훈련의 시작은 당신의 의지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처럼 교회부흥에 실패한 과거가 있다면 이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이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계시적인 설교를 전하고 싶다면 이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이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성령의 불을 받게 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 동행



1부

/

언약궤의
비밀

제1장:

언약궤의 비밀

지 금껏 당신은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까? 언약궤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언약궤는 어디에 있으며 언약궤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도요한이 천국의 성전을 바라 봤을 때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날마다 언약궤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언약궤에서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언약궤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기도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채 바꿔놓을 것입니다.

언약궤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막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성막 문을 열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성막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묻혀만 합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끝부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한 가운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약궤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번제단, 회개의 물두멍, 간구의 진설병, 성령님을 의지하는 정금등대,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언기도의 분향단을 통해 비로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들출수가 있습니다.

성막문에서 시작하여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까지의 과정은 당신의 육적인 죄가 깨끗해지는 정결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육적으로 정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설병과 정금등대,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당신의 혼적인 죄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육적인 정결과 혼적인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지성소의 휘장을 들출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갔다간 오히려 당신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세상의 불을 가져다 번제단의 불로 사용했습니다. 성막에서 사용했던 모든 불은 모두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불로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볍이 여겼음으로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레 10:1-2).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

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령님은 내게 수없이 “정결과 거룩, 그리고 집중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으시니까?”라고 여쭈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까?”라고 여쭈었을 때도 똑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정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늦게 가는 법입니다. 스스로 먼저 육적으로 정결해 지십시오. 정결의 시금석은 모든 사람을 당신보다 더 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해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로 남게 합니다. 비록 당신의 눈에 별볼일 없는 사람이 보여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낮다고 여기십시오. 실제로 당신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당신은 비로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시금석은 하나님만 있으면 바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윗의 시편고백이 생각납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이것의 영어 표현은 “I shall not want”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의 신앙표현도 거룩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7-18).

돈을 바라고 예언할 생각을 마십시오. 명예를 생각하며 은사를 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행 8:20)라는 베드로의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

당신의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마음이 죽어 없어져서 당신의 영(spirit)이 활동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활성화되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영(spirit)으로만 당신과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계시니다. 당신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주

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세가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 25:21-22)

모세가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내게서 어떤 사람은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천국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는 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보여주고 설명한대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대로 지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무척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막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방주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리고 성막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

는 물건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훌륭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줬을 때 그 모형은 바로 천국의 성막이었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모형으로 보고 설명으로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던 것은 그가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언약궤의 크기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언약궤는 가로 2.5규빗과 세로와 높이가 각각 1.5규빗의 작은 상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출 25:10)

1 규빗을 보통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이니 그것이 요즘으로 환산할 때 45~50cm로 볼 수 있습니다. 50cm로 계산했을 때 언약궤의 크기는 가로 125cm와 세로 75cm, 높이

75cm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는 종종 언약궤의 크기를 사과상자에 비교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라면 몰라도 성인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성령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키를 낮추고 몸무게를 줄여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일까요?

모세는 정상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두껍의 역할인 속죄소 앞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약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언약궤로 들어가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고 지금까지 언약궤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약궤에 세가지 성물이 들어 있는 신성한 물건임은 알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네?”라고 여쭙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때부터 언약궤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하라는대로 따라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언약궤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구름은 나를 덮었습니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그 구름은 내 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내 모든 피부조직이 열려 그 구름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구름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 구름이 너를 감쌀 때 사탄마귀가 조금도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뒤 곧 바로 하늘의 문에서 레이저 광선같은 빛줄기가 나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빛이니라... 이 빛이 너의 병을 치유하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

은 치유의 광선이고 나의 육적인 병과 혼적인 병을 치유하는데 사용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그 빛이 네 가슴에 모아지도록 집중하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빛이 흘러가지 않도록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빛 끝부분이 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돋보기를 사용해서 빛을 집중할 때 종이 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가슴 한 부분에서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그 불을 가지고서 네의 병이 있는 곳에 옮기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불을 아픈 곳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불은 내가 원하는 장소로 아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곳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빛은 치유의 광선으로 나의 아픈 곳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내 속에 있는 질병이나 더러운 것들을 태워왔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기 시작했으며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아픈 곳을 옮겨다니는 불은 갑자기 온 몸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불덩어리가 뱅뱅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 몸 전체가 불로 타고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능력이 전이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의 불이었고 그것은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었으며 능력의 전이였습니다.

언약궤의 또 다른 비밀

지금까지 나는 언약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려는 것에 비하면 그런 증상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눴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 바깥으로 나올 때는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빛난 얼굴을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던 것이지요. 남주기 아까워서 수건을 가렸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물어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성령님은 내게 참으로 많은 언약궤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성령님께서 전해 주셨던 것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겼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적질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단순한 궤짝에 불과했지만 스스로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가져갔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악한 종기와 재앙으로 심한 고생을 하게 되었고, 가드로 옮겨 갔을 때에도 언약궤는 혼자 힘으로 그곳 성읍 사람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에그론으로 갔을 때에도 언약궤는 그곳 성읍 사람들을 병들어 죽게 했으며 벳세메스에 이르렀을 때는 언약궤 두껍을 열어 본 사람들로 인해 그 지역의 50,075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어떤 사람은 5만명

이 아니라 75명만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명히 5만 75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의미에서만 중요성이 있는 언약궤가 아니라는 말 씁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함께 했던 모세가 능력의 능력을 받지 않았겠으며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듯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도 언약궤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속죄소(언약궤 두껍) 앞에서 기도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 때나 원하는대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언약궤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대제사장의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옳은 것입니다.

언약궤기도

(1단계) 방언기도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옴
(방언은 천국을 여는 열쇠이다)

(2단계)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눔
(이때 음성과 환상이 열리게 된다)



(3단계) 속죄소 앞에서 보혈을 뿌린다
(보혈이 없이는 그룹을 통과할 수 없다)



(4단계)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5단계) 세가지 성물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
(세가지 성물은 천국의 모든 것이다)



(돌판)
언약(소망)을 상징



(씩난 지팡이)
믿음을 상징함



(만나 항아리)
사랑을 상징함

속죄소의 그룹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는 두경입니다. 그 속죄소는 언약궤의 크기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2.5규빗이고 세로가 1.5규빗입니다. 그리고 약간 높이가 올라가 있어서 그곳에 피를 뿌려도 피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속죄소 양 끝에 두 그룹이 놓여져 있는데 날개를 최대한 활짝 편 상태에서 고개는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 마치 속죄소를 경배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 만들었는데 속죄소는 100%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룹은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은 사뭇 놀라움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흔하고 천한 보잘것 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이곳에서 만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천한 자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라는 사실입니다.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1%도 없는 금을 말합니다. 1%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정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

다.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한번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잘 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죄소와 언약궤 사이를 지키고 있는 그룹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 쫓았을 때 에덴동산에 무엇을 두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화염검과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섭습니다. 악한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사입니다.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두려운 천사입니다. 에덴동산은 곧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통해 천국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궤에 들어가면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천국의 세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세가지 성물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

행을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데는 믿음과 소망이 위축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믿음도 최고이고 소망도 최고입니다. 그 중에 으뜸이 사랑이라는 것이지 결코 믿음과 소망이 별볼일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하기때문에 12장과 14장은 성령사역자들에게는 필수 교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꺼리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였을까?’였습니다. 물론 바울의 언급처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쟁파리처럼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인데… 어째서 사랑이 최고일까?’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소망’도 중요하지 않을까? 한 생각을 어렵듯이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내 아들들은 나에게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빠가 뭘 사준다고 하면 아들은 절대로 그 말이 그대로 이뤄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빠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아빠가 약속을 지킬 것임을 그대

로 받아드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합니다.

언약궤 내부를 보면 세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돌판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왕상 8:9)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지팡이와 만나 향아리를 가져 갔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론의 썩난 지팡이와 만나 금향아리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약궤 앞에 놓여졌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들어갈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팡이나 향아리가 들어갈만한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썩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왜 성경말씀이 서로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언급했던 언약궤는 세상의 언약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했던 언약궤는 바로 천국에 있는 언약궤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사도요한도 천국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계 11:19)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언약궤는 이 땅의 언약궤가 아니라 바로 천국의 언약궤입니다. 천국의 언약궤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세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가지 성물은 바로 ‘아론의 썩난 지팡이’ ‘만나 향아리’ 그리고 ‘돌판’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성물은 천국의 요소들입니다. 천국은 이 세가지가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장소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만나 향아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40년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용할 양식으로 자녀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돌판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으며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말씀들이 이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언약궤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서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서 소망이 자라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궤 안에서 이뤄지는 역사이며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언약궤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감격적인 포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2장:

성막이 주는 유익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막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고전 3:16) 성막이 주는 유익함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주님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성막에서는 1년 356일 제사가 치러졌습니다. 수 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왕상 3:4)

번제는 짐승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천번제는

적어도 천마리 이상의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헌신적인 제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7년간의 대 성전 공사를 끝나치고서 낙성식을 가졌을 때 엄청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이만 이천이요 양이 십 이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와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와 전 앞 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칠일 칠일 한 십 사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왕상 8:63~65)

낙성식 때 사용된 짐승이 공개되었습니다. 소가 22,000 마리였고 양이 120,000 마리였습니다. 모두 합치면 142,000 마리나 되었습니다. 낙성식은 모두 14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루에 10,000 여 마리의 우양이 제사로 바쳐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육십 규빗이요 광이 이십 규빗이요 고가 삼십 규빗이며”(왕상 6:2)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대공사를 통해 지어진 성전의 크기치고는 너무나 작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빗을 50cm로 환산했을 때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길이 30미터, 넓이 10미터, 높이 15미터입니다. 이것은 보통 축구장의 1/4정도 되는 길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 하루에 만 마리나 되는 짐승을 죽였으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도대체 왜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왜 성전에 그렇게 많은 짐승이 피가 흘려져야 했는가 알기 위해 선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었던 재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재앙을 피할 길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
이니라”(출 12:23)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양의 피를 발랐던 집에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사망을 면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
다”(요 1:29)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막에서의 흘린 피는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짐승의 피가 흘렸던 것은 지금도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 줍니다.

성막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됩니다.

성막에 끌려 온 짐승은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번제단 위에 번제로 바쳐지기 전에 피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짐승이 죽어야 하는 것은 번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짐승이 완전히 죽지 않고 번제단에 올려질 경우엔 제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반드시 짐승은 죽어야 합니다.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완전히 번제로 올려질 수 없습니다.

번제단으로 끌려 온 짐승에게는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 직접 안수를 했다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레 4:15)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제사장이 안수를 했고 장로들이 범죄했으면 장로들이 안수를 했습니다. 누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속죄를 위해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짐승처럼 불태워지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물두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두명을 거쳐야 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묻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의식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명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 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찌니라”(출 30:19~20)

우리 역시 매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출 40:35)

이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

있더라”(왕상 8:11)

성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었습니다. 모든 성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이며, 성소에서의 예배자로 거듭날 때 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뜰에서는 회개하는 과정이 있다면 성소에서는 예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속죄소에도 피가 뿌려졌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송아지 피와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피 역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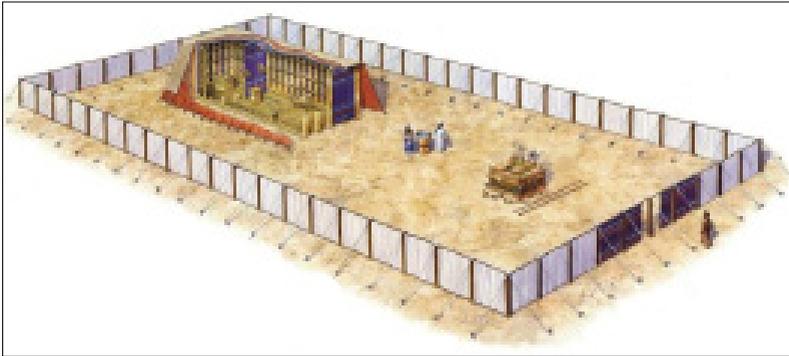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이엇터라”(민 7:89)

제3장:

성막의 구조

성령님은 거룩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기록을 상세히 남겨 두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 놓아 만들찌니”(출 26:1)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그대로 이행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거룩을 경험하기 위해선 성막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막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결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성막은 뜰과 회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속죄의식이었습니다. 속죄 의식을 살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깨끗함’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말합니다. 원래는 성막의 형태였으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이동했습니다. 그 마지막 거처가 길갈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가면서 성막은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실로에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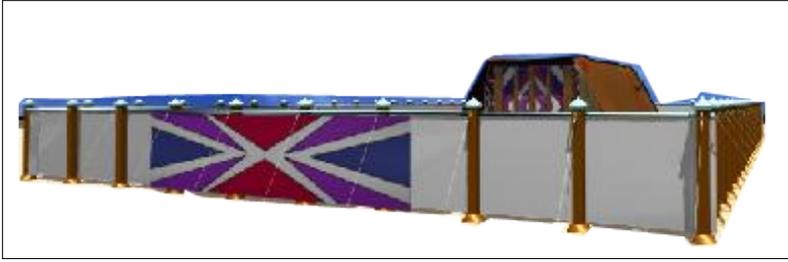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temple of the Lord) 문설주 옆 그 의자에 앉았더라”(삼상 1:9)

성막과 성전은 모든 것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용이었고 성전은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의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50장 이상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막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며, 성령님도 잘 알게 됩니다. 성막을 알게 되면 성경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막을 알게 되면 성경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막을 알게 되면 왜 레위기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켜왔던 레위기가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성막문



성막문은 네 가지 실로 수를 놓아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50규빗(대략 25m)이고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대략 50m) 성막의 문은 동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실로 수를 뜬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뜯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짠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찌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출 26:16)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문은 20규빗(10m)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문입니다. 성막 동쪽편의 길이가 50규빗(25m)이니 거의 반 정도가 문 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문이십니다. 구원을 향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성막문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잘 배운 사람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자유자와 노예의 구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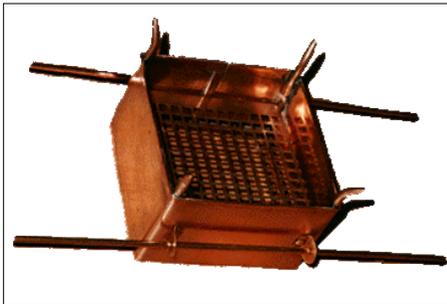
성막문은 오직 동쪽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하고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짐승들이 불살라집니다. 짐승들이 번제단으로 끌려 올 때 짐승에게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레 4:4)



번제단에서 불 태워질 짐승에게 안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수는 신체와 신체가 닿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능력을 전할 때도 사용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번제단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써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어린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짐승이 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번제단 위에 올라가 불태워 죽임을 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삯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삯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죄인의 삯을 대신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령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요 다음은 육체적인 것이 뒤따릅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세례를 의미하며 육체적인 것은 물세례를 말합니다.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육체적인 것이 먼저 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전통 때문에 먼저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적세례, 즉 성령세례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물세례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번제단에서 이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세례입니다. 육체의 깨끗함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사람은 먼저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고 말한 것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물이 들어있는 큰 대야입니다. 성경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 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찌니라”(출 30:19-20)고 물두멍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사의식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모두 신발을 벗은 채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때 성전의 땅은 일반 땅과 다를 것이 없는 맨땅이었습니다. 맨땅에서 신발 없이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방 발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번제단은 늘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러지고 버려지는 곳입니다. 제사장의 손과 몸은 늘 짐승의 피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 기 위해선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물두멍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두멍에서 우리의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이전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성소

성막안에는 회막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회막은 물두멍 바로 뒤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회막은 성소(Holy Place)와 지성소(Most Holy Place)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설병과 일곱춧대와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막의 뜰에서 정결케 된 사람들은 성소에서 거룩하게 변합니



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것은

오직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오직 성소에서 예배할 때 참경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성막의 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경배자를 성소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늘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소의 성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 서면 오른쪽으로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모두 12개로써 안식일 전날에 만들어져 안식일 아침에 진설해 놓습니다.



진설병의 의미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요 6:4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떡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 6: 51)

성소 왼쪽에는 정금등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정금등대는 일곱 개의 촛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촛대가 하나의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는 정금등대의 불이 있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은 모두 네 개의 덮개로 씌워져 항상 어두웠습니다. 처음 덮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청색, 자색, 홍색, 흰 실로 짠 큰 양장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덮개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가죽입니다. 네 번째 덮개는 물개가죽입니다.

회막엔 유리창이 없습니다. 아무런 구멍이나 열린 공간이 없는

차단된 장소였습니다. 그런 회막을 네 개의 덮개로 씌웠으니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런데 정금등대가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혔기 때문에 어둠과 혼란없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정금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었으며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뜻합니다. 정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또한 살구꽃은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또한 정금등대는 모두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은 승리의 숫자이며 완전의 숫자입니다. 정금등대 모양을 자세히 보면 양쪽으로 세 개씩 놓여져 있고 가운데 한 촛대가 우뚝 솟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를 빼 숫자는 6입니다. 6은 인간의 숫자이며 사탄의 숫자입니다. 불안정한 숫자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개인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전해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 4-5)

마지막으로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은 실제적으로 1년 365일 거룩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의 연기는 성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시 141:2)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고서 어린양 앞에 드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5:8)

지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 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그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성소는 오직 한 가지 언약궤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
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
석들이 있고”(히 9:4)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만나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은 모두 하나님의 실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 금항아리는 생명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싹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비석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제4장: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도

영(spirit)과 혼(mind)과 육(body)

성령님께서서는 영성훈련 하는 동안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언약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언약궤의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면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은 육(body)과 혼(mind)과 영(spirit)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육,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혼과 영을 묶어서 영혼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영(spirit)과 혼(mind)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육(body)과도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다음의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흔히 영, 혼, 육의 나뉘음을 삼분설이라고 하고 영, 육으로 구분하는 것을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신학자와 교단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몸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육의 기도

우리의 몸이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혹자는 육은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룩하

고 소중합니다. 단지 육(body)이라는 것이 죄를 짓기에 쉽기 때문에 추한 것이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육체는 한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부모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육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병자들을 만나보면 육신의 모양이 제멋대로 생겨버린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분들의 환부에 손을 얹거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조금은 내 몸이 더러워지는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의 부모입니다. 저들의 부모는 저들의 겉모습에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자녀보다 더 사랑을 표현하고 더 큰 사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육신을 더럽거나 추하다고 해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과 경배의 가장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과 혼과 영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 왔습니다. 나는 이곳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기도를 드릴 때 세 가지 요소를 늘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육의 기도와 혼의 기도, 그리고 영의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세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육의

기도(prayer of body)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그 기도는 혼의 기도(prayer of mind)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기도는 영의 기도(prayer of spirit)로 변화됩니다.

육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정결함을 얻습니다. 이미 회개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육의 기도의 또 다른 부분은 육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육의 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믿는 자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 육의 기도에서 그치고 맙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육의 기도 시간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육의 기도는 얻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니라”(약 4:3)

사람들은 열심히 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곧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맙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4)는 말씀을 들이 내밀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것이 분하고 원통해서 그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많습니다.

육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좀처럼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구함에는 세상적인 정욕이 눈에 보입니다. 사도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입니다. 비록 구하였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정욕을 위해 구했기 때문입니다.

훈의 기도

훈의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입니다. 훈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훈의 기도는 육의 기도의 결실이며 열매입니다. 육의 기도를 거치고 나면 비로소 훈의 기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의 기도만 하고 기도실을 벗어납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데 기도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드리다 보면 기도가 재미 없어지고 실증이 나기 쉽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서로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혼자서만 실컷 떠들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버리니 어찌 그 대화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육의 기도에서 끝나버리는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넋두리만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넋두리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는 하나님을 넋두리 들어 줄 대상으로 삼은 것뿐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르십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늘 삶이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간구와 함께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간구와 함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혼의 기도는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물론 육의 기도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의 기도는 회한과 한탄의 절규함이 있지만 혼의 기도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혼의 기도에서 멈춰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기쁨과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부흥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마치 죽었

던 신앙이 다시 살아난 듯 합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예수님과의 첫 사랑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혼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영의 기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육의 기도가 성막의 뜰에서 드러지는 것이라면 혼의 기도는 성소에서 드러지는 기도이고 영의 기도는 지성소에서 드러지는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육의 기도는 입술로 하는 기도이며 혼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체험은 그냥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외쳐댄다고 얻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으로 다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영의 기도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뭔가를 얻어 보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

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체험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불을 받아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 보겠다고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체험은 없습니다.

당신의 어떠한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혼의 기도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혼의 기도에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비우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와 깊이가 더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의 불이 임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영의 기도

성경에 보면 영의 기도에 대한 기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이 영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영의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영의 기도를 했던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영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한 후 에덴동산에서

떠나 살면서부터 그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담의 7대손이었던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 하늘로 들리어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영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는 영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 6:9)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문에 대홍수가 있었을 때 오직 8명만 살아 남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노아는 방주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방주>라는 단어를 검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에게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노아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

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창 6:17)

만약에 당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창 6:22)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으며 홍수가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종 짐승들을 방주에 넣었습니다. 그리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며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과 순종이 생겨난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가 영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노아가 영의 기도를 드렸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만 언급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억측입니다.”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의 기도를 드린다면 내 말이 사실임을 믿을 것입니다.

영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다는 사실은 믿음을 크게 만듭니다. 노아 역시 우리와 똑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번도 보지 못한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었을 때 큰 확신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큰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람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 4:18~22)

아브라함은 실로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며 명확하고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아브라함처럼 99세이고 사라처럼 89세였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중 대부분은 “No”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이러한 큰 믿음은 영의 기도를 행하는 사람이라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큰 믿음을 허락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으로 다가 오셨습니다. 물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 함께 방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4~6)

아브라함이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듯이 모세 역시 그리 했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을 지었으며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민 12:8)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들어갔던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놓여져 있고 속죄소 양쪽에 두 그룹이 큰 날개를 활짝 펴서 속죄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성소는 성막 중 가장 신성한 곳으로서 영으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듯이 아무나 들어서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일년에 속죄일 하루 밖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아무나 함부로 지성소에 못 들어 오도록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처럼 영의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수건을 둘러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와 대화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껴뜰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 하더니”(출 34:30)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생겨난 것일까요? 모세의 얼굴에 있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출 34:34-35)

모세는 항상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건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와서는 수건을 둘러 썼습니다. 여호와의 광채를 사람들이 뺏어갈까 염

려되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의 광채가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수건을 둘러 쓴 것은 저들이 여호와와의 광채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성소에서 영의 기도를 했습니다. 영의 기도를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체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것은 또한 베드로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영의 기도였습니다. 단지 모세의 기도와 신약에서의 기도의 차이점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조차도 함부로 지성소를 출입하지 못했습니다(레 16:2). 오직 7월 10일 하루 동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
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20)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성막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7년동안 수고해
서 지었던 성전도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없고 헤롯 성전도 없
습니다. 오직 성전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사라
지고 없지만 그 성전은 오늘날 믿는 신자들의 몸으로 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이제 우리도 날마다 성전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하
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우
리 몸이 성전인 것이 분명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
렵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
님의 음성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영의 기
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

우리가 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직도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당신의 지식이나 의지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당신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습으로 당신과 동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변하시라고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순종은 당신의 몫이고 당신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기도를 드렸던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영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의 내용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물론 타락한 선지자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엘리아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우리

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의 기도를 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영의 기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고 이것이 비결입니다. 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영의 기도를 통해 환상을 보십시오. 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크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은 천국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영의 기도

신약에서 영의 기도를 했던 사람은 매우 국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온 백성에게 임하실 수 있었던 것이 오순절 이후였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몇 사람을 통해서 영의 기도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에 공통적인 단어를 언급하고 있

습니다. 저들은 모두 기도에 뛰어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을 때는 평범한 기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병든 자를 고쳐야 하고 죽은 자도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영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약간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대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행 10:9~11)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기도를 언급했으며 베드로의 기도에 <비몽사몽>이라는 단어를 곁들였습니다. 도대체 이 <비몽사몽>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비몽사몽〉은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입니다. 놀랍게도 영어는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기는 〈ecstasy〉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아지경〉, 〈황홀함〉, 혹은 〈환희의 절정〉입니다. 대부분의 영어성경 역본은 〈tranc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trance〉란 단어는 흔히 〈입신〉, 〈혼수상태〉, 혹은 〈졸도〉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가끔씩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신의 경지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입신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대부분 “육의 감각이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 혹은 “마치 내 영이 내 몸에서 떠나 활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입신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비몽사몽〉으로 기도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간구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감각을 어느 정도 잃어 버립니다. 그것은 기도의 수준과 깊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었던 바울 역시 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맙게도 누가는 바울의 기도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기도를 봅시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행 22:17)

이 구절에도 <비몽사몽>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신약성경에 <비몽사몽>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딱 이 두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기도에 쓰였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기도에 쓰인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것처럼 큰 역사와 능력을 보였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영의 기도는 이처럼 큰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도 영의 기도를 하셨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길 좋아하셨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택하셨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이 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입니다. 이는 ‘골방’ 혹은 ‘밀실’이라는 뜻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모든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병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모든 능력은 다 기도를 통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으로 기도하면 저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단 한번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생토록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방울처럼 흘러 내릴 정도의 기도를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을 한쪽에 있게 하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변형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변형의 산이라고 불려진 산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대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눅 9:28~29)

사실 나는 ‘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입고 계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을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과 어투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권세와 행하셨던 능력, 그리고 보이셨던 사랑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이유는 저들에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실제로 영의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손과 머리와 온 몸에 특별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2)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병든 사람이 나왔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역사를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수 없이 많은 성령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바울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한다면 바울의 역사도 일어나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빌립집사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며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가능하고 또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성경의 내용 중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하신 곳을 찾아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방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옷에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은 것처럼 병든 자가 우리 옆에 있을 때 병이 나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동행



2부

/

언약궤로
들어가리라

제1장:

성막기도의 능력

오래도록 성막세미나 강사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의 성막기도 내용을 전해 듣고선 "성막을 통해 기도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막에 대한 세미나는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막세미나는 단순히 성막의 구조와 성물이 갖는 의미를 소개하거나 성막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성막기도는 기존의 성막세미나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성막기도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임상실험에 의한 확실한 효과결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 두려움은 없었지만 생각지도 않게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라"는 성령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막상 만들긴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여쭙었습니다.

“성령님, 만들긴 했지만 거기다 무슨 내용을 올려야 합니까?”

성령님은 지금까지 써 놓은 글을 올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써 놓은 글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카페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원했던 내용들인데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면서 성막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성막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들지 않아서 장시간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성막기도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면 환상이 금방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막기도를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께 많이 여쭙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인터넷을 통해 성막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성막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스카이프였습니다. 스카이프는 사용료가 무료였고 25명까지 음성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오히려 영성훈련에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지 불과 5개월도 채 안되었을 때 카페의 회원수는 1500명이 넘어섰고 성막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영성훈련에 참여하는 분의 수가 250명에 다다랐습니다. 성막기도 인도자가 20여명 세워졌고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20여개의 성막기도반에서 성막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막기도는 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에 걸쳐 진행됩니다. 성막문에서 시작해서 지성소의 언약궤까지 이르는동안 최소 1시간 이상의 기도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막기도를 하게되면 1시간이 마치 10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성막기도를 하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기도를 통해서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안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막기도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하면 누구에게서든지 특별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전류입니다. 손과 발 그리고 온 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비증상입니다. 마비 증상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머리에서 아지랑이가 솟아 오르는 느낌도 있고 온 몸에 기름이 흘러내리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가하면 손과 손목, 팔목이 끊어질 듯 아픈 증상도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나타난 증상을 보니 12가지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번제단에서 육과 혼을 태우는 과정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방언기도를 드릴 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큰 증상은 지성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지성소에서는 환상이 아주 빨리 열립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직접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함께 여행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음성 듣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궤에서는 세가지 성물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돌판과 지팡이와 만나향아리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판은 언약을 상징하고 지팡이는 믿음을, 그리고 만나향아리는 사랑을 뜻합니다. 성막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성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기도자를 감싸고 주님의 치유의 빛이 내리 쬐면서 실제적으로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는가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각종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막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성막기도순서를 보고서 그대로 따라 했는데도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성막기도반에 배정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음성과 환상 및 증상들에 대한 점검을 받아 가면서 올바른 영성훈련을 받

을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정도만 꾸준히 성막기도를 참여하면 대부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환상도 쉽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성막기도를 함께 드렸을 때 음성과 환상이 너무 쉽게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성막기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기도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영어 성막기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막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처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부터서 성령님은 "언약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성막에 언약궤가 있다는 정도의 지식만 있었지 언약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언약궤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누구하나 언약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언약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언약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언약궤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는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언약궤 기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그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한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막기도> <언약궤기도> <영의기도>라는 말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막기도>와 <언약궤기도><영의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성막기도>는 신앙의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기도>나 <영의 기도>는 상당한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다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형성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십년을 교회 다니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모함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언약궤기도>나 <영의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막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를 할 때 "성령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간구하거라"고 말씀하시면 간구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거라"고 하면 방언을 합니다. "더 세계 하거라"고 말씀하시면 더 세계 합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 회개

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1시간 혹은 더 긴 시간의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충 20분 정도 쯤 지났겠지 생각하고 시계를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성막기도>를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성막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순서를 모두 알게 된 것은 LA에서 치유집회와 세미나, 그리고 사역자훈련모임을 통해서였습니다. 나 혼자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전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모방하고 변형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막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성막기도>를 해 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성막기도> 내용을 가지고 직접 훈련자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성막기도>의 짜인 틀이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짜인 틀에서 항상 무궁무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상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짜인 기도의 틀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성막기도>를 인도했더니 사람들의 영적상태에 많은 변화가 왔

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성막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아래 언급된 성막기도의 순서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거나 혹은 교회 목사가 아래의 내용을 가지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래의 언급된 내용만으로 인도를 해도 놀라운 기도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막기도>를 인도하신다면 더 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면 저의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서 하는 One way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묻기도 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의문도 갖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대화는 더 깊은 대화로 발전해 갑니다. 이러한 대화는 그저 날씨나 묻고 안부나 묻는 정도의 형식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너무나 진지하고 저의 깊은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성령님과의 대화입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기쁨이 솟아납니다.

성령님과의 간절한 대화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이 <성막기도>를 권해 드립니다. <성막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층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3차원의 기도가 4차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혼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기도가 양방통행의 기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글과 함께 신명나는 기도의 삶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막기도순서

(8단계) 하나님 영광제형



언약궤

(7단계) 방인기도-방인권양



분향단



정금등대

(6단계) 성령님 인도하심 요청



(5단계) 간구-선포-갑사기도



진설병

물두멍



(4단계) 죄의 회개

번제단



(3단계) 산제사로 드림(영적제사)



성막문
(2단계) 신앙고백

(1단계) 보혈 무덤

제2장:

성막기도 순서

성막은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에 대한 놀라운 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듯이 천국에서도 성막을 통한 정결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성막이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계 21:3)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삶이 큰 고육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삶은 재미있는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성막을 통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기도를 시작 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보혈을 뿌리셔야 합니다. 나는 훈련자들에게 머리, 얼굴, 어깨, 가슴, 배, 성기, 무릎에다가 피를 세번씩 뿌리도록 권유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피를 뿌리고 기도를 하게 되

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곳과 안 뿌린 곳의 차이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장소 주위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예배당 곳곳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정결해질 지어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선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곳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오래 된 곳은 더 그렇습니다. 좋지 못한 영업을 했던 장소를 새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때문에 악한 영들이 얼씬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주님의 보혈을 계속 뿌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곳은 성스러운 장소가 되어서 점점 더 악한 영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 기도를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한 곳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골방'(마 6:6)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의 의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말합니다. 방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게 될 때 좁은 장소는 그 능력이 훨씬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자들에게 "정히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차에서라도 하세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실정을 볼 때 파킹장이 오픈되어

있어서 차고가 있는 가정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장소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나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곧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 고백함으로 성막문을 통과하십시오.

성막문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실(베실)로 짠 문입니다. 성막문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요 14:16). 앞서 설명했듯이, 성막문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기도의 장소와 당신 몸에 뿌린 다음 성막문에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막문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막문이 열릴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막문이 열리도록 다음의 네 가지 주님의 속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 고백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성막문이 열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막기도를 인도한다면 기도 참여자들에게 성막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참여자들은 눈을 감고 성막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당신은 다음의 네 가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긴 시간동안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아래의 내용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 모두 암기하셔서(성구 포함) 기도 참여자들에게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성막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 완전히 이해가 될 때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좇아 살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만 허락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4)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했던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자신의 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시 145:1)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짊어져야 할 모든 짐을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시험을 능히 도와 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8)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

2. 번제단에서 자아를 죽이십시오.

열린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헌신>을 약속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죽이십시오. 짐승이 태워지는 것처럼 태워지는 당신을 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당신 대신 짐승이 태워 죽었지만, 지금 영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당신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가 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번제단 위로 올라가 서십시오. 불이 타오르게 될 때 당신의 몸은 태워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아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자아가 살아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당신의 모든 추한 모습을 태워 버리십시오. 이기적인 마음도 태우시고 못된 성질도 태워 버리십시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모습도 태워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인간의 전통에 의해 행했던 모든 잘못된 행실도 태워 버리십시오.

번제단에서 당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나

는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러한 당신의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믿음의 깊이를 한층 높혀줄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연 설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막기도를 인도하는 분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암가하십시오.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십시오.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고전 3:16). 그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세례를 통해서 이미 얻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했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사실을 믿을 때 성령세례를 받은 것입니다.(롬 10:9)

성령세례를 받은 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성령세례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는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0)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성령님께서 많이 드러나신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보다 더 많이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3.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되십시오.

번제단에서 헌신을 약속했다면 다음 단계는 물두멍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면 이미 당신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당신을 사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있을 것이며 당신 코에서 콧물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자가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삶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받고 보상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시간이 더 길고 더 강할 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넓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막기도를 인도하는 분이라면 번제단에서 헌신의 기도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약속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어느정도 번제단에서의 기도가 끝났다면, 사람들을 물두명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고(자연스럽게 기도가 멈춰질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수그러질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물두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물두명의 모양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성물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크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성물이 바로 물두명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는 각 사람의 회개의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두명에서 완전히 죄를 깨끗케 씻지 않는다면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한 다음 함께 통성으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도자 마음대로 시간을 짧게 하거나 길게 해서 안될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부연 설명입니다. 인도자는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인도할 때 이 내용들이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죄는 없어졌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죄의 값은 치러진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롬 5:19)

예수님을 통해 이미 아담의 원죄는 파괴되었고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비록 원죄가 파괴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범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릴 때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부모와 자녀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심지어 모르고 있는 죄라도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절실하게 하십시오. 엎드려 통곡이라도 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4. 진설병에서 간구하십시오.

물두멍에서 회개가 이뤄졌다면 당신은 이제 정결케 된 것입니다. 이제 담대히 성소에 나아가십시오. 성소는 회막으로 덮혀 있습니다. 그 회막은 네 개의 천으로 덮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막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회막은 성막 안에서도 또 한번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막의 뜰은 누구든지 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헌신을 약속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해 줍니다. 번제단은 성령세례를 의미하며 물두멍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비록 당신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령세례와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참경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경배자가 되려면 회막안의 성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막기도를 인도하신다면 기도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육적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 담대히 성소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우리가 봤을 때)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 왼쪽에는 정금 등대가 놓여져 있으며, 지성소와의 사이에는 분향단이 가로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을 바라 보십시오(진설병을 바라 보시라고 말하십시오)

진설병은 생명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에 놓은 떡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필요사항을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간구가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가족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실 때 구체적인 것까지 간구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곳은 간구와 함께 선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구만 합니다. 하지만 선포가 따를 때 간구가 아주 빨리 응답받게 됩니다. 먼저 간구하십시오. 그런다음 간구한 내용을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면 덧붙이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병마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시간이며 거기에다가 선포가 병행되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10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연설명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단과 물두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번제단에서의 자아를 죽이고 물두명에서 죄의 회개가 이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진설병은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가족에 대한 간구를 구하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

만하리라”(요 16:24)

5.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정금등대에서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주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사항을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까지 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금등대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이 시간부터 영의기도를 준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께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로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성령님께서 당신을 지성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막기도를 인도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을 기도 참여자들에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런다음 다음 이 부분을 따라 하도록 하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 기도 참여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느껴 보도록 권하십시오. 실제로 사람들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것은 다음의 분향단에서의 기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음 부분은 부연설명입니다.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제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선 나 자신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
이니”(사 59:2)

하지만 내가 없어지고 성령님만 나타날 때 죄가 없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6.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분향단은 너무나 중요한 성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히 9:3-4)

이것은 히브리서가 천국의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가 이 땅에 있는 성막을 기준으로 써졌다면 히브리서는 천국의 성막을 기준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 중 제일 난해한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천국의 성막을 볼 수없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이해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세계를 봤거나 이해했다면 히브리서같이 쉽게 풀리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성막에는 분향단과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위의 속죄소만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막문이나 번제단이나 물두멍, 진설병, 정금등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헌신을 약속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고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진설병과 정금등대가 필요치 않는 것은 주님과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분향단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느냐고요? 당신은 이미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간구했고 선포했으며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설병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기도를 하게 될 때 당신은 육과 혼적인 기도만 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정금등대)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바울이 장려한 기도이며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해서 방언을 싸구려 은사취급 하시

면 곤란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전 14:14). 바울이 했던 이 구절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방언이 곧 영의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영의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방언을 시작할 때는 우리의 의지로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방언을 받을 때는 의지보다는 영적으로 크게 변화되었을 때 방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 방언기도를 할 때는 의지적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라도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작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방언을 하다보면 어느새 내 영이 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인간의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방언기도를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방언 기도를 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한 가장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해 보십시오. 속도를 빠르게 해 보십시오. "랄랄라"가 처음에 나오는 방언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랄랄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언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4:18)고 말했기 때문에 방언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방언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언기도는 ‘천국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방언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전 14:14)

바울은 방언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 자체를 영의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마치 분향단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방언은 영의 기도를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을 할 때 방언소리에 신경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십시오.

7. 속죄소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방언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이 커짐을 느끼면서 고요함이 밀려 옵니다. 그때 천상의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 환상이 열리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며 하나님 의 음성을 별도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요함을 느낄 때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성소에 들어 섰고 언약궤 두껍인 속죄소 앞에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한번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를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소입니다. 당신은 속죄소에서 주님의 피를 뿌리어야 합니다. 피는 당신 몸에 뿌리십시오.

처음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는 손으로 직접 당신 몸에 뿌렸지만 속죄소 앞에선 당신 영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입도 열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 숨은 쉬어야겠죠... 당신 육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찬양도 없습니다.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영만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속죄소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게 되면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개의 그룹이 당신을 언약궤로 내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궤를 지키는 그룹 사이를 통과하여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의 영은 기쁨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막기도를 인도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지성소에서의 기도를 잘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설명하거나 인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도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것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이며 영안이 열려 환상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부분은 보충 설명입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막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 있습니다. 성막기도를 위해 한적한 장소를 정하셨다면 그곳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피를 뿌렸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레 16:14)

피 없이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이미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뿌렸지만 속죄소에서 다시 한번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반드시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방문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 몸으로부터 피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를 만지십시오. 예수님의 발을 만지십시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십시오. 예수님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 매 달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보다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8.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언약궤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 금항아리입니다.(히 9:4) 돌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입니다. 이를 가리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성경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말씀대로 들려 주실 것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롬 4:17)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롬 4장, 히 11장)

만나 금 항아리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제 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약궤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당신이 언약궤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예수님의 치유의 빛과 성령님의 불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당신에게 밀려 내려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구름이 당신을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찬 것을 느낄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코를 통해 온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피부조직이 구름과 닿아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광선이 당신 심장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선은 그곳에 계속 비추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 광선이 작은 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당신 몸속을 휘집고 다니면서 당신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암세포를 태우고 더럽고 추악한 영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과 마음은 강건케 될 것입니다. 광선이 불이 되고 불을 아픈 부위에 옮기는 것에는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당신의 몸을 치유할 때 어느새 당신 가장 밑부분부터 성령의 불길이 치솟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당신의 몸은 진동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당신은 큰 변화를 갖

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과 빛과 불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영은 커져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의 기도의 시간은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2시간이 10분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느껴본 적은 없나요?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2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집니다. 1시간 기도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루에도 여러차례 가능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기때문에 너무나 좋을 뿐입니다.

언약궤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많아서 이곳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말만 전해 듣고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의 기도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약궤기도를 회중들에게 인도하면 그렇게 사모함도 없고 믿음도 크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러니 영의 기도를 직접 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영광체험을 하겠습니까... 실로 큰 은혜가 있는 언약궤 기도 시간입니다.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부연설명입니다.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약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천국의 성전의 것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늘의 성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언약궤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계 11:19)

물론 사도요한이 다른 것들을 못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의 성전에는 언약궤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저들은 영원한 지옥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시민들에게는 죄가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도 필요 없고 물두명도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성소의 진설병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천국에서 주님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금등대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성령님을 상징하는 정금등대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향단은 필요할 것입니다. 분향단을 포함해서 모든 지성소의 성물들은 다 필요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당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싣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히 9:3~4)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는 분향단이 성소에 놓여져 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분향단을 지성소에 놓여 있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으로 성전을 본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본 것이지요. 천국에서는 분향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성막에서는 분향단이 성소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분향단에는 1년 365일 계속해서 향불이 올려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년에 대 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매일 분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향단이 성소에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관점으로 볼 때에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 단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과 불로 나타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당신을 둘러쌀 것입니다. 구름이 당신을 덮을 때 당신에게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세력은 당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구름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은 구름 외에도 불기둥이 있습니다. 불은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태우고 비추고 전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 1:3)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요 12:46)

예수님의 빛이 내리 쫓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은 치유의 빛이십니다.(말 4:2) 이 빛이 내리 쫓을 때 당신은 그 빛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그 빛에 집중하게 될 때 그 빛은 조그마한 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돋보기를 통해 비춰진 빛이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불이 생겨지면 그 불을 당신의 질병에 가져 가십시오. 그 불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질병이 있는 부분이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당신은 치유 받았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이렇듯 당신의 영혼육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니다.

불의 또 다른 특성은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은 모든 더러움을 태우고 능력을 주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듯 강렬한 불길처럼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매일 묵상하기 바랍니다. 구름과 빛과 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영을 키우고 당신의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제3장:

내가 언약궤로 들어가리라

“언약궤로 들어가거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언약궤’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 순히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언약궤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보고 “언약궤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께 여쭙아만 했습니다.

“성령님, 언약궤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서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모든 것을 알려 주신 것은 아닙니다.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언약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알고 있는 언약궤에 대한 지식 중에는 그 후에도 듣게 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

은 3개월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성막문을 열고 성막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성막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였지만 성막기도 하는 과정에서 ‘이 걸까? 저걸까?’하는 마음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골방만이 성막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기도는 ‘골방’기도입니다(마 6:6). 골방은 곧 당신의 ‘영의 골방’입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골방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영의 골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의 골방’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실질적인 ‘골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성막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의 인도에 따라 함께 기도를 드린다면 충분히 그곳에서도 ‘영의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영의 골방’을 찾기 힘든 것은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속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소리 내서 고백을 한다면 당신의 ‘혼’이 금방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당신의 ‘영’은 멀리 멀어지고 맙니다. 나는 방언이 끝나고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옆 사람은 아직도 방언을 하고 있으면 또 다시 당신의 ‘혼’이 살아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당신의 영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기 바랍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히 장소가 없다면 한적한 시간에 교회에 가서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영의 골방’은 세상의 소리가 없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분위기 좋은 배경음악을 깔고 묵상하듯이 영의 기도를 하는데 음악이 있으면 당신의 영은 결코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영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에서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음악이 갖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음악은 영적인 것입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겠지만 클래식 음악에 심취된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정리정돈 되어 있고 고상합니다. 그것은 클래식 음악이 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음악은 우상과도 같습니다. 나도 신학교 가기 전에 10년 넘게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음악이 주는 특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신실하게 지휘하고 있는

교회 지휘자가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음악에 심취되어서 그런 열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클래식 음악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클래식 음악이 들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음악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아, 너무 좋다’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찬송가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동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클래식 음악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음악이 주는 파괴력 있는 우상성질입니다.

한 때 즐겨 들었던 ‘침묵기도’ CD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차분하고 묵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음악이 영의 기도하는데 엄청난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LA에 이사를 갔을 때 아파트 바깥에 놓여져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기도실로 만들었을 때 바깥의 소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 잔디 깎는 기계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 놓으면 차라리 낫겠다 생각을 해서 전기선을 가져다가 스테레오를 준비하고 침묵기도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짜고짜 “음악을 끄거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침묵기도 CD를 틀어놓고 기도를 시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음악은 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명령이 아니라 강권적인 명령이셨습니다. 나는 음악을 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성령님께서 그러셨을까?’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 절대로 배경음악을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니힌 목사는 그의 책에서 “반드시 사람 목소리가 들어간 음악을 사용해 야지, 악기만 들어가 있는 음악은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음악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성령님의 명령에 따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방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성막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피를 뿌리는 골방과 피를 뿌리지 않는 골방의 차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는 바로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사방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벽에도 뿌리고 천장과 바닥에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도 뿌리십시오.

보혈을 뿌릴 때 그냥 뿌리지 마시고 선포하시면서 뿌리십시오. 그때 사용되는 선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뿌리노라. 모든 더럽고 추악한 세력들은 파쇄될 지어다”

“내가 보혈을 뿌리노라. 이곳은 정결하고 거룩해질 지어다”

당신 스스로에게 피를 뿌릴 때는 가급적 온 몸에 흐를 정도로 뿌리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살이 뿌리십시오. 꼼꼼하게 뿌리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세 번씩 뿌리는 데 순서적으로 머리, 얼굴, 어깨, 가슴, 배, 하복부, 무릎에 뿌립니다. 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뤄지기를 원하면서 뿌리세요.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뿌리세요. 어깨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뿌리세요. 가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뿌리십시오. 배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이 다 빠져 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뿌리십시오. 성기는 모든 음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정결해 지도록 간구하면서 뿌리세요. 마지막으로 무릎에 뿌릴 때 뼈와 골수에 강건함이 있게 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뿌리십시오.

그렇게 뿌리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제일 편안한 자세로 임하십시오. 당신의 육신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바닥이 딱딱하면 방석이나 이불을 가져다가 가장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막기도 중에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몸이 불편하면 ‘저림’의 증상이 마치 쪼그리고 앉아 있기 때문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으면 너무 육신이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전해오는 증상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을 신경쓰지 않기 위한 최대

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손을 무릎에 놓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에 여러 차례 두 손을 모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두 손을 펼쳐 놓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손 바닥을 위로 향하게 놓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의 불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며 미세한 증상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오른손과 왼손의 능력이 서로 다른 능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모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혈을 뿌리면 이제 성막문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막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막문을 보면 통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다시피 성막은 100규빗과 50규빗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북으로 100규빗이고 동서로 50규빗입니다. 문은 오직 동쪽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문의 크기가 20규빗이니 한 규빗을 대충 50센치미터로 계산했을 때 10미터나 되는 큰 문입니다. 세상의 큰 부자집이라도 10미터나 되는 큰 문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는 길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막문은 모두 네가지 실로 짜져있는 문입니다. 사용된 실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하얀 베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색깔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붙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각각의 색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비로 다른 목사님들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지만 나는 성령님께서 주신 의미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색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색실은 왕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홍색실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성막문에 나아갈 때에 고백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고백을 하실 때는 소리를 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의 간단한 고백에다가 내용을 첨가해서 긴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생육하며 번성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 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나 또한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십시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짐승들이 죽

임을 당해서 번제단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곤 모든 것이 타고 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 스스로 번제단 위로 올라가십시오. 번제단에 올라가 서십시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느끼십시오. 이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닥불이나 가스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당신의 몸을 태웁니다. 하나님이 불이 당신을 태울 때 당신의 자아를 태우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밖에는 모르고 당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오만한 당신의 자아를 태우십시오. 그리고 자존심도 태우십시오. 이렇듯 당신의 몸과 혼을 태울 때 비로소 당신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한 줌 재로 남게 된 당신의 육과 혼을 바라보십시오. 육과 혼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당신의 영을 느끼십시오.

그렇게 번제단에서 내려 오시면 됩니다.

물두멍에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물두멍 앞에 이르러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가급적 절실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결해져야만 됩니다. 정결은 당신의 육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가급적 뜨겁게 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가장 크게 외치십시오. 눈물과 콧물이 나오도록 절실히 하십시오. 회개가 강할수록 영광체험도 강합니다.

진설병에서의 간구와 선포,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회개가 끝나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성소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 왼쪽에는 정금등대,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에서는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일일이 간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당신의 간구입니다. 당신이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신 채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할 것을 아뢰십시오. 필요한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아픈 증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시오.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간구가 끝났으면 간구한 내용에 대한 선포를 하십시오. 물론 한 가지 간구가 끝날 때마다 선포를 뒤 이어서 해도 되고 모든 간구를 다 한 뒤에 선포를 묶어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간구-선포-

감사가 함께 패키지로 묶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암세포는 증식을 멈추고 이 시간에 완전히 파쇄될 지어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세 번 반복하십시오. 세 번 반복하시면서 그 뒤에 선포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선포가 끊이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선포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50만원은 지금 은행에 채워질 지어다”

선포가 끝났다면 선포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올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암세포가 완전히 파쇄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은행에 50만원이 입금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얻어질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어진 것에 대한 확신기도를 말합니다. 얻어질 것에 대한 기도는 <소망>이지만 얻어진 것에 대한 기도는 <믿음>입니다.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간구와 선포, 그리고 감사가 끝났다면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육적인 기도와 혼적인 기도였다면 정금등대에서는 혼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연결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을 환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언약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듯 성령님 환영의 고백이 끝났다면 분향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빠르고, 크고, 세게, 높게 하십시오. 열심을 다해 하십시오. 가장 절실하게 하십시오.

방언통변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통변의 능력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통변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이 활성화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방언하면서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냄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잡생각이 몰려 오면 더 크고 더 강하게 방언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절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모르게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방언기도가 끝나면 방언찬양을 하십시오. 어떤 찬양을 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도자는 입으로 소리 내어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할 때는 입으로 찬

양해서는 안됩니다. 오직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영으로 찬양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방언찬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음률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부르십시오. 들려지는 찬양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영으로 따라 부르십시오. 그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천사의 찬양소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기회가 된다면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키십시오. 그 찬양이 바로 천국의 찬양이니 귀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을 보급시켜 드리지요……

이렇듯 영의 찬양을 하는 동안 당신은 지성소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것은 절대로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마세요. 눈썹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침도 삼키지 마십시오. 온 몸이 마비된 것처럼 그대로 있으십시오. 파리가 날라와 앉아도 쫓지 마십시오. 함께 영광을 체험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마귀는 이 시간 당신 몸을 자극시키고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당신 몸이 간지럽고 신경을 쓰게 합니다. 이때 당신이 몸을 움직여 버리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절대로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오직 당신의 영만 활동하도록 내 버려 두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뭔가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 “무엇이 보입

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입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식으로 성령님과 대화를 진행시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속죄소와 언약궤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를 뿌리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속죄소 앞에 서있는 자신을 상상하시고 그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당신의 손으로 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영으로 뿌리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육과 혼은 죽었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육신의 입과 손이 움직이려 하는 것은 영똥한 기도입니다. 아직도 손을 움직이는 분이 있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언약궤에 들어가는 것은 속죄소를 통과한 후부터 시작됩니다. 언약궤에는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약궤는 2.5규빗 x 1.5규빗 x 1.5규빗의 크기이기 때문에 사과상자와 같은 작은 박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말입니다. 실제로 언약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언약궤를 상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소를 통과한 이후부터의 모든 장소가 언약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언약궤는 조그마한 상자가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이 담겨

있는 넓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포옹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닷가를 데리고 가실 수 있으며 천국을 같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수 물을 떠 마시게 할 수 있으며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들려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의 통해서 누군가 힘들어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동행할 때는 성령님께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주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따로 존재하시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으며 말하는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당신을 언약궤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듯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9-11)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천
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
셨습니까? 축하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축하 드립니다.

단순히 당신이 성취했다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돌리십시오. 당신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님은 그렇게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4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 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그 빛이 오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4~5)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것은 어둠입니다. 하지만 미약한 촛불이라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곧장 물러가고 맙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의 전부입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후 4:6)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 마음에 비취셨습니다. 이 빛을 충만이 받고 사용할 때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에게 빛이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빛을 사모하는 마음마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요 3:19)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깨닫고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쬐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만의 개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겔 43:2)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빛이 가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계 21:11)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계 21:23)

하나님이 볼 때는 빛이지만 인간이 볼 때는 불이 됩니다. 성경은,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출 24:17)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 영광을 불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불을 받는 것입니다.

영광과 빛, 그리고 불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 1:3)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발산됩니다. 그래서 빛과 영광과 불은 서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하신 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분이로서 단순한 영적 존재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모습도 갖추거나 취하지 않는 영적 존재하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

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
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
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계 4:2~3)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의 형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가 둘러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크고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
님의 형상을 본 또 다른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기록한 글에서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
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출 24:9~11)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칠십 장로와 함께 하나
님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발을 뵈으며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출 33:23)

하나님의 형상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겔 1:26~28)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사람의 모양 같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리 위와 허리 아래 부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이상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

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
이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런 존재하심도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
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잘 섬
긴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루는 여느 때처럼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문을 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의 피를 사방에 뿌리고 나 자신에게도 피를 뿌린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의 기도, 혼의 기
도, 영의 기도입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나는
이 세가지 순서를 가급적이면 따르고 있습니다.

육의 기도가 끝나고 마침내 혼의 기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
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
이 전해 왔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너란다”

성령님은 나의 마음을 아셨던지 좀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다윗아,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니?”

나는 성령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해 버렸습니다. 내 속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은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나 봅니다.

“다윗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너’란다”

정말이지, 성령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인격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거의 기절할 뻔 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성령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걸드렸습니다.

“다윗아, 하나님은 너의 사역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란다. 하나님은 단지 ‘너’만 있으면 기뻐하신단다”

성령님은 그 말씀과 함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한참이나 생각하게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만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는데 나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사역을 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를 추하거나 부족한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영광스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마음은 다 똑 같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더 관심이 가는 자녀는 못난 자녀입니다. 조용기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조목사님이 천막교회를 하고 있을 때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세 드신 할머니가 매일마다 조목사님과 철야기도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조목사님의 마음이야 고마웠지만 연세 드신 할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침이 되면 큰며느리라고 하는 자매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끓여 오는데 옷 입고 다니는 행색이 부잣집 여인처럼 생겼습니다. 너무도 궁금하고 이상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보아하니 며느님이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왜 며느님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추운 천막에서 날을 새십니까?”

조목사님은 그때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이 평생토록 남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조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새 아들이 있다우,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런 대로 잘 사는데 막내 아들이 잘 못살고 있다우. 어찌 막내 아들이 편히 살지 못하는데 엄마 된 자로써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 할머니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못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쏠리듯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더 연약한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국한 되어 있음을 알고 난 후부터 교회사역에 대한 나의 태도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외의 것들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인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올바른 이치입니다.

그 일이 있는 후로도 여러 차례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다음과 같이 보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

문맥상으로 보면 덧구 형식입니다. 물과 바다가 덧구 형식을 취하고 있고 영광과 세상이 덧구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은 영성하게 덧구형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한 덧구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지만 구절을 자세히 드러다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구절에 대한 궁금증을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아, 이미 여호와의 영광은 세상을 덮고 있단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미 세상을 덮고 있단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마음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지금껏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성령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마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덮고 있지만 세상 사람만이 그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것이며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종교적인 신앙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보다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차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그 크기와 깊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이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고전 15:40~41)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단순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영광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하늘의 영광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영광이고 저것도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 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세상의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서로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또한 다릅니다. 별과 별의 빛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높은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광 위에 영광이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광의 끝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체험은 계속되어야 하며 더 높은 경지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게 체험하면 할수록 당신의 능력과 권능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

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단 한번의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광 위의 영광은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이렇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는 나라입니다. 없는 자는 계속 없을 것이고 자신의 가진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부여되는 것이며 능력 위에 능력이 채워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성령의 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 위에 내리 쬐는 ‘불기둥’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희를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진행했습니다.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민 14:14)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백성들 한 가운데 설치했습니다. 12지파는 세 지파씩 나누어 성막 사면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가는 곳을 백성은 따라 갔습니다. 성막이 진을 치면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것이 며칠이든 수개월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다. 성막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성막에 내리 쬐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가 신호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레위 지파는 성막을 걷기 시작했고 구름과 불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 갔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출 40:36-37)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밤과 낮을 병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기둥은 반드시 밤에만 나타났고 구름기둥은 반드시 낮에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홍해에서의 두 기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왔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퍹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지도록 명했고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자그마치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바다를 건넌다고 하더라도 한 두 시간 안에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은 밤새도록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의 사이로 옮겨 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출 14:19-20)

구름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군대가 있던 곳은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엔 광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낮이 아닌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밤인데 광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겠습니까?

구름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 막았으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환하게 비춘 것입니다. 왜 불기둥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췄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선 빛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바다를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성경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출 14:24)라고 그 상황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한 것은 밤 중에 일어났으며 그것이 적어도 새벽까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함께 사역을 합니다. 불과 구름이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서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였다면 구름기둥 역시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

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출 40:35)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온통 구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름은 회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구름이 회막 안까지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던 것은 모세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은 구름으로 인해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왕상 8:11)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그 위엄과 권능이 너무도 크고 거룩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으며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겔 10:4)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은 항상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비단 낮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밤에도 구름은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출 40:38)

밤에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구름이 항상 성막을 덮고 있었듯이 불기둥이 항상 회막을 내리 쬐고 있었음을 인식하시겠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은 있다가 없어지거나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듯 불과 구름기둥도 영원합니다. 구름이 항상 회막 위에 있었듯이 불기둥이 지성소에 항상 비취졌음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5장:

성령님을 만나는 길

어쩌면 당신은 이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환상도 보고 각종 능력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며 각종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할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사역자를 찾아 나섭니다. 유명하다는 사람은 제 다 좇아 다닙니다. 기도원도 많이 갑니다. 은사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항상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괜히 나 자신이 작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찾아 헤매지만 정작 은사를 얻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특유의 ‘교만’이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성령님과 은사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은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에게 주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은 아예 은사를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며칠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이때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죽음을 무릅쓰고 소위 ‘예수쟁이’의 한 사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만 그들은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연관이 있었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간혹 성령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던 사울왕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삼상 10:10)

그 당시 사울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보좌가 안전해질거란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왕은 나쁜 사람이었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왕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온 백성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적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령님의 역

사는 어느 한 지도자의 인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이처럼 한꺼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더우기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은 개개인을 성령사역자로 부르셨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일어난 일들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저들에게 어떤 능력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언급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으며 학문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세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담대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큰소리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행 2:14)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명절을 맞이했습니까? 오순절이었습니다. 해마다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에 돌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거처한 곳에 회당이 있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대명절이 있을 때에는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이곳에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설교의 핵심은 ‘예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또 다른 십자가를 불러 일으킬만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설교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무리들과 군사들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잡히면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해야 했고, 심할 경우엔 십자가 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

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
늘”(행 2:37)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것처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 잡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자그마치 3천명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의 설교에 수천명이 주님의 백성으로 변했다는 사실말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에이~ 사도행전이니까 가능했죠? 지금에 그런일이 일어나겠습니까?”라고 뼈뚫한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은 베드로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독일인 성령사역자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한번 집회에 수만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집회에 보통 200만명이 집결합니다. 일일이 서약서를 나눠주고 마음이 동할 때 자원해서 회심하는 증거를 남기도록 인도하는데 보통 집회때마다 수만명의 회심 서약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더 지독한 모슬렘입니다. 할렐루야!

비단 베드로만 이런 역사를 일궈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스테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테반은 일반 집사였습니

다. 물론 그당시 초대교회의 일꾼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는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행 6:8-10)

스테반은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와 변론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를 못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스테반처럼 집사였던 빌립의 이야기가 바로 뒷 이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좃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앓은병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행 8:5-8)

빌립은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적과 표적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묵임이 풀리면서 중풍병이 낫고 앓은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곳곳에 흩어져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삼시간에 전세계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313년에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부자나 천민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이적을 보였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놀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세상의 향락을 탐했던 자들이 세상의 묵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그 자유함은 로마 전체를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기독교는 세계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성령사역자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며 막혔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고 돈이 없어 이빨을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좋은 금이빨이 생겨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셔야만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령사역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야 할 성령님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설령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기적과 표적의 주체라면 왜 당신은 자꾸 사람을

쫓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 빛이 있길래 그렇게 애착을 갖습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능력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만 진짜 성령님이시고 당신에게 있는 성령님은 가짜 성령님이시란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100% 하나님이며, 당신이 쫓는 사람의 성령님도 100%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이 더 잘생기신 것도 아니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 사람의 성령님이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모두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성령님을 쳐다 본다고 당신 안의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쳐다 보며 침을 흘리는 것이 당신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령님은 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내 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성령님과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간음을 가장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로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간음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함께 할 때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

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간음을 행하는 것은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만듭니다.

어떤 책에서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배우자의 간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배신이고 아픈 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성령님을 더 좋아하고 동경하고 흠모하는 것은 일종의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모욕이며 상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배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없어서 그래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열심으로 해 봤습니까? 정말로 애타게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찾아 봤습니까? 당신의 성령님과 조용히 함께 하는 시간이라도 가져 봤습니까? 당신이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성령님을 쳐다 보면 안됩니다. 당신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성령님이 안계신 것도 아닙니다.

수만은 부부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를 느끼지도 못하고 심지어 배우자를 발견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함께 살지만 서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함께 있어도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마음이 배우자에게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며 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배우자 몰래 바람핀 사람들에게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

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수십년동안 바람을 피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피우고 오는 날에는 아내와 등을 지고 잠을 잡니다. 바람을 필때는 팬티를 자주 갈아 입습니다. 여인네에게 향수가 더 진할 때 경고의 냄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요즘 애인없는 사람이 어디있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십년을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사람은 아내에게 아픔을 선사했습니다. 생활비는 벌어 줬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랑은 벌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 나쁜새끼야~”라는 욕설을 매일 들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도 성령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느끼기 전까지는 제대로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령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동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성령사역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어찌다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가진 목사를 보면 ‘참 좋겠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걸……’하는 생각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완전히 딴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니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나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

성령님을 만나는 첫번째 길- 사모함

당신은 성령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십니까?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성령님과 동행을 해 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 충분한 노하우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내게 어떻게하면 성령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의 경우는 먼저 ‘사모함’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시간을 낼 수 있으며 관심을 쏟습니다. 그 사모함은 ‘골방’을 찾게 하며 혼자 있게 합니다. 내게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혼자서 할러니 잘 안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분위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교회에 가면 ‘골방’보다 더 좋을까요? 교회에 가면 ‘골방’보다 분위기가 더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혼적인 감정에 치우친 사람입니다. ‘골방’이 교회보다 몇 배는 더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보다 골방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 혼자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할 곳에 가지 않습니다. 말없을 때 ‘영혼의 골방’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주님께서는 언제나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 3년 반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수만명의 사람들이 따라 다녔지만 언제나 기도는 혼자 하셨습니다. 오직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렇게 홀로 ‘골방’을 찾으셨습니다. 변형의 산에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고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변형의 산에서 드렸던 영의 기도였으며 그것은 바로 ‘언약궤기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찾지 마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언약궤기도’라는 말을 없습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성경을 찾지 마십시오’라는 말만 인용하면 나보다 더 이단스러운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인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를 잘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두번째 길- 영의 활성화

사모함이 있다면 ‘골방’을 찾을 것입니다. ‘골방’은 성령님을 만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아름다움도 없고 세상의 요란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요란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끌릴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복잡한 문화에서 벗어나 잔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곳은 ‘골방’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골방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골방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영이 활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은 곧 내 영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도무지 영(spirit)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혼적이고 육적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도 육적이며 혼적이고 저들이 추구하는 것도 육적이고 혼적입니다. 하지만 골방에 가만히 있으면 육과 혼은 죽습니다. 육과 혼이 죽을 때 비로소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죽으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분주함’과 ‘조급함’으로 영의 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과 혼을 죽여야 합니다. 육과 혼을 죽이면 분주함도 없고 조급함도 없게 됩니다. 육이 살아 있으면 분주함때문에 골방에서 뛰쳐 나갑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도무지 골방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과 대화할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혼이 살아 있으면 조급함때문에 골방에서 갇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때문에 집중을 못합니다. 어쩌면 골방에서 나는 냄새때문에 집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도 성령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마음이 죽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영(spirit)만이 살아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활성화 시켜 주는 유일한 장소는 ‘골방’뿐입니다. 내가 ‘골방’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정해진 어떤 장소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방’은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정해진 장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역하면서 머무셨던 기간에는 같은 장소를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1년 내내 같은 장소에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장소가 때로는 하루가 되었을 것이고 때때로 1주일 이상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내 영(spirit)이 쉴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방이 될수도 있고 작은 옷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영이 집중할 수 있다면 그곳은 분명히 주님께서 언급하신 ‘골방’임이 틀림없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골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도 ‘내 영의 골방’은 언제나 내 것입니다. 귀찮은 사람이 잔소리 할 때에도 나는 언제나 내 골방에서 쉬를 얻습니다.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영의 기도를 할 때 모기가 내 피부를 물곤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상황을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기 배부르게 하자는 길을 선택합니다. 물론 간지럽습니다. 하지만 간지러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영의 집중을 합니다. 때로는 밖에서 싸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싸움구경인데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의 안식처인 골방을 찾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모든 것입니다. 영의 골방에서 쉬를 잘 얻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소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애써 기뻐하지 않아도 늘 기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세번째 길- 성령님과 의 동행

만약에 당신이 영의 골방에서 끊임없이 쉬를 얻었다면 당신의 영은 매우 활성화 되었을 것입니다. 웬만한 육체적인 유혹은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떠들고 싶은 생각,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행동들을 즉각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어느새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성령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당신의 영이 활성화 되었다면 당신은 금방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인줄 몰랐지만 이제는 당신의 영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인줄 인식하게 됩니다.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세번째 길은, 무엇이든지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형식적인 기도만 드리지 말고 성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식탁 의자를 꼭 하나 더 빈 의자를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어떤 물건을 사면 좋을지 여쭙 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 보시고요. 커피를 탈 때도 설탕 몇 숟가락이 좋을지 여쭙 보세요. 운전하면서도 성령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지하철 안에서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신이 성령님을 만나지 않아도 이미 성령님은 당신을 만나셨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천사들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성령님은 결코 먼저 당신을 찾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불러도 대답없는 성령님이 아니라 부르지 않았으면서도 불렀다고 우기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캐네스 해긴 목사님의 꿈 내용을 잠깐 들려 드릴까요? 캐네스 해긴 목사님이 꿈 속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몰려 왔더랍니다. 호랑이도 있고 시커먼 원숭이들도 있고... 모두 싸납게 해긴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 달려 들더랍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 주세요요… 저들을 쫓아 주세요”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들에 사로잡혀 죽을 지경에 다다랐답니다. 기다리다가 도저히 하는수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꺼져!”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몰려왔던 짐승들이 일제히 물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다 떠나고 난 후, 예수님께 “왜 저를 안 도와 주셨나요?”라고 여쭙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네가 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해긴 목사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교훈적인 꿈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당신의 먼저 접근이 없으면 먼저 다가 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래?”라고 빈정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정하신 규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없어도 괜찮으신 분이시지만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질 않습니까? 토기장은 토기를 마음대로 깨트릴수도 있습니다. 토기가 자신을 만든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다가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십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손이라도 펼쳐 보십시오. 뭔가 해 보십시오. 성막 기도로 접근해 보세요. 영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 성령님과 대화하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6장:

성령의 불 체험하기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차이

하 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성령의 불’에 대한 관심을 가져 봤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한번도 들은 적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충만’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성령충만이란 말이 하도 많이 남용되어서 “성령충만 합시다”라고 말하면 그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충만이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윗 구절에서 언급된 성령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불세례
를 말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을 때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령세례를 받을 때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
의 기름부으심에는 더 큰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게 이 구절을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한 성령세례가 아니라 성령충
만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보다 명확
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
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
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
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

다. 이제 남은 것은 불세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말하며 성령의 불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은 성령과 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령세례가 물세례보다 더 중요하듯이 불세례는 성령세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령세례와 불세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다르듯이 성령세례와 불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세례도 중요하지만 불세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세례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세례에는 더 큰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세례는 성령의 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세례는 성령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물세례를 이해한다면 성령세례 또한 이해할 것입니다. 물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이고 성령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육체적인 것이라면 성령세례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세례는 물세례도 아니고 성령세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상으로 볼 때 성령세례는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뜰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막의 뜰은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막의 뜰은 참경배자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았다고해서 참경배자가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없이 갑자기 불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야 하듯이 불세례를 받기 위해선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성령세례가 번제단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불세례는 지성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세례가 참 경배자의 준비조건이라면 불세례, 즉 성령의 불은 참 사역자의 조건입니다. 물세례가 물로 행해지는 것이고 성령세례가 성령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불은 기름부음으로 행해집니다.

성령세례에도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세례를 통해 어떤 이는 방언을 하며 또 어떤 이는 예언도 합니다. 하지만 불세례를 받은 사람에겐 그 이상의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신유의 은사에도 여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의 길이가 다른 것을 똑 같은 길이로 펴주는 치유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는 치유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세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함의 근원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살전 1:5)

믿으십시오. 성령에는 엄청난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성령세례와 함께 성령충만함이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과 전이

성령님은 성경에서 자주 불로 표현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NIV(New International Vision) 영어성경에선 성령을 가리켜 “the fire of spiri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2~4)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했으며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들은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의 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례를 물로 주는 세례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세례에다가 <불세례>를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왜 세례요한은 자신의 물세례에 비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언급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세례요한은 물세례만 행했습니다. 물세례를 통해 죄사함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세례를 주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

한의 세례로라”(행 19:2-3)

사도 바울로부터 성령세례를 받게 된 에베소 제자들은 그 즉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세례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세례의 본질적인 요소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때 성령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부부가 함께 살지만 마음은 따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성령님이 믿는자의 몸 안에 함께 거하시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기도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직접

행사하고 싶습니다. 바로 불세례가 이러한 일을 돕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불세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세례를 받게 되면 당신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으로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너 많이 변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에 가득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를 주신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만큼 불세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불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세례에 대한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불세례의 능력을 어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세례는 성령세례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세례의 강력한 능력과 변화를 체험한 후에 불세례를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모르는 것과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성령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성경을 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성경주석 해

석보다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예수님과 제자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고 또한 70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의 행적은 어느정도 알 수 있지만 70제자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의 극히 일부분에서 70제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다른 곳에서는 그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구절은 70제자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눅 10:1)

예수님께서 70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신 것은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2제자와는 별도로 70제자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세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며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장면을 살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눅 9:1)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제자는 귀신을 제어했으며 병을 고쳤습니다. 물론 70제자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70제자들은 사역후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눅 10:17)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뿐 아니라 70제자에게 동일한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성령과 능력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행 10:38).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으셔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부여하셨던 것일까요?

이 부분이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전이>를 통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전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

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프실 때에도 남들처럼 배를 움켜 쥐며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남들처럼 죄의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인간의 삶이셨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가장 천하고 약한 사람보다 훨씬 더 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의 능력을 키우셨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했고 병을 치유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12명의 제자든지 70명의 제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70제자가 누가복음 10장에 단 한 차례 언급된 이후에 종적을 감추고 만 것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바로 당신과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70제자의 가장 첫번째 사명이자 큰 사명은 <추수할 일군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추수할 일군> 나와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모든 믿는자를 제자로 부르셨고 저들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

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이제 당신은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2제자만 능력을 받았고 70제자만 권세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말씀으로 명하셨을까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의식이라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안수>의식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수>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안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허락없이 안수하다간 교회가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만큼 안수에 대한 인식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안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 1:6)

물론 이 구절에 대한 성경학자들은 안수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단순한 목회자에 대한 선임목회자의 위로 정도로 해석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냥 적힌대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 제자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성경저자들은 <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동기부여>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혼적으로 해석하려는 저들의 노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식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다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히 6:1-2)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와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안수>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66권 성경 중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뛰어난 책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는 천국과 연관되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다른 중요한 것들과 함께 <안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꼭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수>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모든 짐승들에게 반드시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죄의 전이>역할을 했습니다. 마땅히 산 사람의 죄를 물으면 그 사람이 직접 번제단에 올라가 불에 태워 죽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물을 대신 태우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반드시 안수가 행해졌으며 그것은 <죄의 전이>였습니다.

모세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세울 때 안수를행했습니다. 단순한 안수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저들 머리 위에 부은 다음 손은 얹어 안수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부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를 세울 때 안수의식을 행합니다. 나도 목사가 되었을 때 10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 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목사가 된 기념 선물로 액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수가 매우 중요한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안수는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안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던지 안 믿던지는 받아드리는 사람의 자유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던지 안 믿던지도 자유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안수의식에 대한 의견은 더 자유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안수의식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안수의식의 중요성을 믿고 행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허락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장가도 안 가고서 아들을 달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월급을 달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안수 의식은 직접 행하고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해야만 좋은 것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흔히 했던 <안수>를 행하셨을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능력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안수를 통해 성령의 기름부음이 전이되도록 명하

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행합니다. 안수를 할 때 내 머리에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머리에 화관이 썩어지는 느낌이거나 아지랑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간혹 머리가 쪼이거나 이마 한 가운데에 뭔가가 눌러지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것은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느껴지는 증상말고도 내 몸에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대략적으로 수 십 가지 정도쯤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 증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증상을 성령님께 여쭙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증상들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대한 무례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할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일일이 예전에 배웠던 책을 꺼내 다시 읽는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영성훈련을 통해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증상에 대한 치유 방법을 깨달아가는 것은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증상

만약에 당신이 육의 기도를 지나 혼의 기도를 거치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체험이며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나 투시의 은사 같은 것도 갖게 됩니다. 당신에게 어떤 은사가 임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당신 자신조차도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간구하지는 마십시오. 간구는 육의 기도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에서 오직 평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예배 후 묵상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내 다리에 머리를 의지한 채로 누워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대주라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통해서 어떤 교회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눈은 동영상을 향했고 오른 손은 아내의 이마에 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 생각엔 대략 20여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이마를 대고 있던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픔은 팔목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통증은 팔 전체의 마비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니 아내에게 강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며칠동안 아내의 온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 아내의 손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아픈 곳에 갖다 대거나 상처

있는 가슴에 손을 대면 그 효과가 즉시로 나타났습니다.

아내와 나는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서로에게 불을 나누고 증거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영성훈련동안 나타나는 증상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약 4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손과 발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어 봤더니 성령의 강한 기름부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나타난 증상은 다음날 아내에게 똑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내 손과 발에는 뜨거움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증상의 또 다른 모습은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입니다. 뜨거움과 감전의 느낌은 늘 손과 발이 부어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 불을 받았을 당시에는 주먹을 쥘 수도 없을 정도로 손이 부었습니다. 심지어 음료수 뚜껑을 열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손가락 마디 마디에 큰 통증을 느끼면서 아프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증상이 사라졌고 손의 힘은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사람들은 뜨거움을 금방 느꼈고 손을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안수할 때 저들도 손과 몸에 특별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께 안수를 했는데 갑자기 왼쪽 손목과손 일부분이 부어올랐습니다. 핏줄이 다 보일 정도로 부어 오르며 피부가 마치 터질 듯 했습니다. ‘이러다가 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성령님께 물었더니 성령님께서서는 “괜찮으니 계속해서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조금 있다가 손과 손목이 원래대로 돌아 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제게 “왜 왼쪽 손에만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령님께 물었더니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다른 은사를 받는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양손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성훈련을 하는 동안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두 손을 잡지 말고 따로 무릎에 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할 때면 어김없이 성령님은 두 손을 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 날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성훈련을 시킬 때 성령님께서 지시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똑 같은 말을 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훈련받는 제자 중 어느 한 집사님께서 어느 사모님과 전도사님을 안수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불과 2개월도 채 안 된 제자였습니다.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성령에 관한 책을 읽고서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고 자신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저희 영성훈련에 참석한 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작하지 4주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니 환상을 보고 손에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비록 신출내기 집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사모님과 전도사님이 성령에 취해 비틀거렸을 때 이 집사님이

두 분에게 안수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엄청난 능력이 두 분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집사님으로부터 전해오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양쪽 손의 느낌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손은 엄청난 통증을 느낀 대신에 다른 분에게는 짜릿 짜릿한 전류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 날 많은 사람들이 양쪽 손의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종의 감전된 느낌이나 떨리는 느낌이나 뜨거운 느낌 같은 것은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의 증상은 떨림과 감전된 느낌이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나 어떤 특별한 느낌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증상의 종류를 나열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실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많은 오해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 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지만 막상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깜작 놀라거나 어찌면 뒤로 자빠져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나보면 알겠지만 성령님은 결코 무서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이 너무나 반갑고 감격적입니다.

또 다른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성령님이 비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성령님을 비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성령님을 비인격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전자음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분께서는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조금도 권위가 있거나 명령적이거나 내게 하대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늘 자연스럽고 부드러우시며 넓은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더없이 좋은 선생님 이시자 안내자이십니다.

성령의 불의 권능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왜 최고의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사람에게 전해질 때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불일지라도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는 강력함이 있을진대 하물며 하나님의 불이 온 세상을 불로 태우지 못하겠습니까?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이듯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영광은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래서 성령의 불은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믿음 없이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도 없으며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이요 능력의 기초입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앓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사용할 때 산이 바다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마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일 것이며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아무나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한 성도나 특별한 집사, 권사, 장로 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어찌 나 같은 자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담대하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을 초창기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자신의 발목에 안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발목에 안수해 달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지 한 달도 채 안되었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는 있었어도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발목은 큰 아들 돌 무렵 때 계단을 헛디더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수술과 치료가 있었지만 그 이후론 오래 서 있지도 못했고 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많이 늘어났고 몸무게가 많다 보니 발목의 통증이 날이 갈수록 커져 갔습니다.

그날도 발목이 너무 아파서 내게 안수를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번도 병 치료를 위해 안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대함을 갖고서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선포하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뜬금없는 성령님의 말씀에 “예?” 라고 되 물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선포해야 할 문장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목은 정상대로 회복될지어다!”

성령님의 말씀 따라 마치 글을 읽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성령님은 다시금 내게 “다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두 번을 더해서 모두 세 번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은 세 번의 선포기도가 끝나자 내게 손을 때라고 하였고 나는 아내의 발목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어나 걸어봤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접실이었기에 제자리에서 뒹 뛰기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뒹뒹뛰기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약간의 움직임도 발목에 통증을 가했는데, 아내는 아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큰 아들과 함께 음악을 틀어놓고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발목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아내의 발목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개척할 당시에 일을 해야만 했을 때 가게 카운트를 보느라 오랜 시간 서있을 때에는 발목이 약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약간에 불과했으며 그럴 때마다 나는 발목을 붙잡고 불을 넣어주었고 그 즉시 발목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발목이 멀쩡했으면 이사할 때 나와 아내와 나이 드신 장인어른 세 사람이 이사짐을 다 나르고 정리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습니다.

아버지에게 영광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자녀는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역시 당신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자녀도 함께 누릴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7)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속성과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그 속성을 완전히 몸

에 배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 후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생겨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없을 땐 성령의 불도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세상의 것을 탐하면 그 사람의 불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의 불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한다면 그 사람의 불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겐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남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가짜 불을 가지고 있음도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의 불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다른 속성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있으며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불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참다운 교회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보다 교회 내에 더 사기꾼이 많고 도적질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라기 보다 오히려 사기꾼 양성소나 도적질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음란이 있고 간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몸이 아닌 사교 클럽

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이러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교회 내의 모든 정결치 못한 것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 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손길과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향취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성령충만 곧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 줍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그리스도의 향취를 사람들로 하여금 맡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제7장: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영광체험의 최고봉, 대화

모

세는 이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심이 있더라”(민 7:8-9)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 25:22)

모세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회막을 덮었으며 불기둥은 지성소의 언약궤에 비취졌습니다. 속죄소

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으로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속죄소는 너무나 거룩해서 심지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레 16:2)

모세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분명 모세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속죄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모세의 성막도 없습니다. 오직 성전은 우리 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성전에는 번제단도 있으며 물두멍도 있습니다.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도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성령세례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물세례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혼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언약궤로 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도 받고 더 나은 영광 체험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들었듯이 당신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지어 평신도 아나니아와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자녀인 당신이 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요 10:3)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

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음성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전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겐 특별한 신호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거나 반드시 행해야 할 때엔 마음이 평안해 진다거나 가슴이 뜨거워 진다거나 하는 그런 신호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거나 나쁜 일이라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엔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음성은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음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은 하나님과 당신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2).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만 들으셨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례요한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세례 후 하늘에서 들려 온 소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진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 줄 알라 하셨기에”(요 1:32-33)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지금도 오직 한 사람만 허용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받아 드릴 뿐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이 온 지성소에 가득 차 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름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낸다고 할지라도 언약궤에 비취지는 하나님의 큰 영광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십시오. 매일 당신만의 언약궤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그룹의 보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속죄소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어느새 당신은 하나님과 하

나로 합쳐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낸다고 할지라도 언약궤에 비취지는 하나님의 큰 영광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동행



3부

/

성막기도
체험사례

3대(할머니, 엄마, 아들)가 함께 한 성막기도

금요일 엄마를 보러 친정으로 향했다. 정민이와 함께 달리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다. 머리로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찾은 것 같았다. 성막기도 인도를 받고 침대에 누우면 더 뚜렷했었는데 두 번 반장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제 확실히 감을 잡았다. 이 주파수를 놓치지 않고 엄마한테 가서 빨리 같이 해 보고 은혜를 나눠야겠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쏘살같이 달렸다.

“엄마!!”

현관문을 열고 확 들어갔다. 엄마의 표정이 좋다. 엄마는 늘 하나님의 지성소를 사모해왔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목말라해하고 있는 과부다. 한 주동안 통화로도 은혜를 나눴지만 어제의 은혜를 나누고 얼른 성막기도를 해보자고 했다.

감동의 표정으로...

"그래 얼른 해보자"

밤9시쯤 정민이를 앉히고 엄마와 내가 3대가 앉아있다. 우린 은혜를 사모하여 어디갈때마다 3명에서 같이 다녔는데 이번 성막기도도 3대를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다. 이미 성막

구조에 대해 아는 엄마에 대한 약간의 설명하고 난뒤 정민이에게는 그림을 그려 상세히 진행될 과정을 설명했다.

어느새 내가 인도자가 되어버렸다. 성막기도순서를 아는자가 나뿐이니.....시작되었다..

성막문앞에서 보혈을 뿌리는 것을 시작으로 번제단에서.....또 평평 회개하면서 우는 정민이...누가 들으면 초상이라도 난양 엄청난 소리를 내면 흐느낀다. 정민이는 번제단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신을 느꼈다고 한다.

정민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

"엄마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

"무슨냄새??"

정민이 계속해서 냄새 때문에 운다.

"몰라 ...이이잉 냄새가 고약해 ..너무 심해 지독해...."

"물두명으로 가면 없어질꺼야 불을 느껴봐"

나는 계속 인도해 나갔다.

갑자기 체루탄 마신것처럼 목이 메케한것이 말을 할때마다 기침과 목이 아파 소리를 낼수가 없다 사단의 방해가 넘 심했다. 중간

중간 보혈의 뿌리고 의지하며 물두명으로 간다. 이제 코가 맵고 지독한 냄새가 조금씩 없어져간다고 한다. 그런데 정민이가 처음으로 처음부터 해보는 것이라 자꾸 물어보고 흐름을 깬다.

다시 집중...

집중하며 물두명으로 향한다. 계속 올려대는 정민이 이번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끝임없는 회개란다. 갑자기 구역질을 한다. 참으라고 하니 그냥 삼켰다고 한다. 신속하게 내앞에 앉히고 아이의 가슴과배에 내손을 내고 막 회개의기도를 올렸다. 얼마안있어 내가 구역질을 심하게 하더니 이물질을 끌어냈다(정민이가 할것을 대신한것 같다). 아이를 안심시키고 계속 집중을 요구했다.....

우리엄마는 집중이 잘안되는지.. 정민이가 흐름을 이만저만 흐리는것이 아닌지라 미안해진다. 물두명에서 예수님이 손에 물을 얹어 정민이를 씻어주시는것이 보인다고 정민이가 말한다. (영의 흐름을 깨고 있는 정민이가 보는건 또 잘보니 희한할뿐이다 정말 인지?? 아닌지??)

난 물항아리가 위로 들어올려져 물을 부어주시는것이 보인다. 떡상에서의 간절한 기도에선 서로 뜨거운 중보기도를 올리고 정민이는 떡을 먹는 자신이 연상되어 졌다고 한다. 금촛대에선 성령님을 초청하고...

만나 금항아리 - 정민이는 금송아지가 깨지고 사람들이 죽고 항아리가 갑자기 깨지더라. (이게 뭔지 몰랐는데 성령님께 계속 여쭙보았다 나에게 임한 깨달음은 자기속의 우상이 깨지면서 자아가

죽는것이라는 그럴때 믿음이 정금같이 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용되어진 주님께 쓰임받는 진리의 말씀을 담는 금항아리가 된다는 깨달음이...) 나에게는 - 가나의 혼인잔치에 쓰임받은 항아리 도구 그릇. 심령이라는 그래서 정민이가 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돌판 - 정민이는 10계명이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 한다. 난 사랑이라고 하신다.

지팡이 - 정민이는 믿음이라고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난 생명이라고 하신다. 엄마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구름과 빛과 불앞에선 엄마는 예전에 처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들었는데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그 열린하는 가운데서 빛이 짝 내려오더니 그 빛가운데서 한없이 울고있는 키가 큰 사람과 아주 작은 사람 두사람이 울더라고 했다 너무 슬피...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들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하라"

이것을 본후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가 떠오르고 연상되어 진다고 말한다.

정민이는 계속 약간의 산만함과 질문으로 나의 집중을 흐리면서 은혜는 혼자 다받는것 같다. 난 자꾸 목이 주체할수 없을정도 기침

과 메케함으로 공격받고 있고 보혈만 의지할뿐이다.

임재의 시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또 강하게 받은듯 누웠다. 빛문이 열리고 구름이 보이고 구름에 빛이 나오면서 불이 되어 자기맘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엄마 !! 왼팔이 넘 아파 심하게 아파 마비된것처럼 움직일수가 없어 무서워.."

"무서워하지마 치료해주시고 능력주시는거야 내가 목사님께 물어봐 줄게"

안심시키고 오른팔은 무겁다고 한다 힘이 없고 떨어진다고 한다 다리도 무겁고 쇠돌큰게 눌르는 것 같다고 한다.

갑자기 눈을 뜨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엄마 구름도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예수님하고 정민이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이 사진찍은 사진 액자 그림같이 찍힌 모습이 보여"

(목사님.. 정민이가 본 것이 맞나요? 이것저것을 이렇게 첫시간에 봐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기맘에 "팔이 나아질것이다"그런답니다. "행복해질거다. 임재가 들어가서..."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없지만 내생각인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게 말해" "마귀는 못들어온다 예수피를 자꾸 하루도 빠짐없이 뿌리고 다녀라. 팔이 나아질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 자꾸팔이 아프다고 한다 " 조금 나아졌다. 어깨도 안아프고 손목도 아팠는데 마비처럼.... 괜찮아져가"

정민이 맘에서 "왼팔을 한번이라 움직이면 아플것이다. 일부로라도 움직이지 마라... .너의 성격중 하나 때문이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숨을 쉬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건 뭐야?"

"응? 이부분도 물어봐줄께 엄마 잘 모르겠어"

속이 답답하다고한다.

엄마는 어리둥절해 하고 임재를 깊이 느낄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서...온통 정민이의 증상에 매달려있는 우리 두 모녀...

"노란불 빨간불이 마음에서 커졌어"

"하나님의 영광..하니 마음에서 파란색에서 빛이 나와"

"불이 더 커져"

"이제 왼팔이 쥐난것처럼 그래..... 좀 가벼워졌어 ...왼쪽 손목만 집중적으로 뜨거워핑장히..."

어느새 성막기도가 끝나자 목이 메케한 증상과 기침이 사라진다. 성막기도시 인도자들이 받을 영적공격에 대한 증보를 더 늘려야겠다고 깨닫는 시간이다. 우리 반장님.....꼭 ...더 세계 ...증보하리라 다짐해본다.

친정엄마는 본인이 혼자할수 있게 성막기도 순서설명과 그림과 내용을 다 적어놓고 붙여놓고 왔다. 혼자해보실거라고 하신다 넘 기뻐하신다 오늘은 정민이와 같이하여 깊이 나아가지 못했지만 꼭 사모하시니 성공하실것 같다. 컴퓨터를 못하시고 컴터도 없어서 자료를 보실수 없다는것이 아쉽기만 하다.

이렇게하여 3대의 성막기도는 마무리를 지었지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정민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건지....또 왼쪽팔에 대한 증상은 무엇인지.....눈을 뜨고도 뚜렷히 봤다는데 확실한 것인지(저도 눈뜨고도 환상을 보기에 볼수 있다는건 아는데 정민이가 정말 본걸까요?)

오늘은 완전 정민이가 횡재한 날인것 같습니다. 임재가 깊어 그냥 자는 모습이 사랑스럽지만 급격한 폭풍같은 현상들은 다 정말 일까요??? 궁금합니다.

특별한 성막기도체험

성막기도 시간이 다가오는데...마음이 즐겁다~

내 안에서 계속 찬양이 울려퍼진다~

사실, 기쁜일보다는 지금 급박하게 재정적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뭐 이런 찬양만 계속 울려퍼지고~

나의 심각한 상황을 보면, 다른때같으면 하루종일 한숨쉬었을게 뻔하고 공부도 잘 안되었을텐데..

어제 사모님께 전이받은 효과인가?

내가 너무도 즐거워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드디어 성막기도시간..

너무 즐겁게 기다려져서 일찍부터 접속하고 있었다.

찬송을 미리 펴보고 가사를 보며~딱 내게 주신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피를 뿌리고 성막문안으로 들어갔다.

번제단이 돌로 되어있었고 그 안은 많은 것을 태웠던 듯 그을려 있는 모습이였다.

그 위로 올라가 무릎꿇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안의 것들을 다 태우고 싶다 생각하면서 내가 내 몸에서 주머니들을 꺼내고 있었

다.

'주님, 교만을 여기 놓습니다'

'주님, 욕심을 여기 놓습니다'

이러면서 주머니들을 내 앞에 꺼내놓고 있었다.
그리고...마치 허물을 벗듯 나의 몸을 벗어서 그 주머니들과 같이
놓았다.

주님의 불을 기다렸다.

불이 내려왔는데..희한한게 내가 앞에다가 놔둔것만 활활 탔다.

"주님~저도 태워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태워야 할것들을 다 꺼내놓고 벗어놓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듯?했다.

순간..그럼 나의 영은...태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
며..물두명으로 갔다.

물두명..회개를 하는데..

비통해야할 내가 성막기도 시작전부터 진행되는 내내 얼굴에 미
소 한가득 품고 있었다.

회개를 하면서도 내 죄를 보고 비통한것이 아니라 그걸 용서해주
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꾸 즐거운 웃음이 번졌다.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활짝 웃

고..

이런식의 회개를 계속 했다.

그리고 성소 안..

반장님의 인도를 따라 진설병앞으로 갔는데...

상위에 쌓여진 둥글고 넓은 떡이 천장에 닿을것처럼

높~이 쌓여있었다.(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 왜 이런모습이 보여지는건지 여쭙어보았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정금등대앞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분향단 앞에서 방언을 하는데 마음에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었다.

"주님 사랑합니다~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제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연인과의 사랑보다 더욱 순결하고 강한 사랑,

가족과의 사랑보다 더욱 큰 사랑.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장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당황하지 않고

속죄소로 가서~늘 반장님이 시키시는대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내 몸에 보혈을 뿌리는 것을 상상했다.

(영으로 뿌린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런 것이 영으로 뿌리는 것인듯..)

그리고 언약궤 안에 들어갔다.

금빛 언약궤엔 세가지 성물이 있었다.

그 안에 들어간 내가 만나 항아리를 열어 거기에 있는 것을 집어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헉... 성한 언약궤에서 내가 뭐하고 있는거지?^^;

그리고 아무 맛도 나의 육신은 느낄 수 없었으나..뭔가 참 맛있는 것 같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리고는 성물을 구경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언약궤를 막~밀면서 부웅 부웅 이러면서 놀고 있지 않은가..

(과연... 이것도 정상인지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언약궤를 안고 그 위에 엎드리질 않나..^^;

그렇게 놀다가 이번엔 언약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쁘고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데..

하얀...안개같은 것이 점점 내 주위에 몰려드는 것이 보였다.
그 안개속에서 아주 평온한 듯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
주님이 다가와 안아주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건.. 내 소망이
반영되었던 것이라... 내 상상인것 같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한다며
주님께 재롱잔치를 보여드리듯
찬양을 하며 춤을 추는데
"내 영이 기뻐 노래해~내 영이 기뻐 찬양해~"이런 찬양을 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을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에 신기한듯 바라
보며 기뻐하고 있는데,

'하하하하하'

라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느껴졌다.(들렸다고보다는 느껴졌다)

그렇게 춤을 추다가..
아니야.. 경건하게 앉아서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더니..
무릎꿇고는 주님께 아뢰려고 하는 내가 보였다.
뭔가 슬픈얘기인듯 한데..
느낌이... 억지로 슬픈것을.아픈것을 생각해내서 얘기하려는 것
처럼 보였다.
(사실, 그 당시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다가 갑자기 슬픔, 아픔

얘기하기란..좀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괜찮다~억지로 얘기하려 할 필요는 없단다~

오늘은 네가 처음으로 성소 안에서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충만했던 특별한 날이 아니니?

우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꾸나'

대략 이런 말을 하시는게 느껴졌다.

뭔가...굉장한 기념일 파티처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다.

은빈이와 함께 한 성막기도

카페에서 회원등급이 되었다. 아궁~ 왜리리도 가슴이 떨리고 쿵 쿵거리던지... 내가 너무나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두려움까지 밀려 오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걸 바로 깨닫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 훈련을 통해 더욱 주님앞에 나아가리. 주님을 알아가리.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리.

오늘 남편 목사님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는데... 목요일날로 하잖아... 응~~ 글 더 읽어보고 하신단다... 조금 서운한 맘이 들어왔다. 서운해하지도 말고 편한맘으로 기다리라고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도 내생각은 속상하고 섭섭. 에궁~~ 주님! 목사님에게 성막기도의 사모함을 부으셔서 함께하게 하소서. 아멘~

이다윗 목사님의 보혈의찬양을 틀어놓고 성막기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온 은빈[고3]이가 방문을 뺨뚫이 열고 "엄마! 나왔어" 하며 방긋웃으며 들어 오더니 "주님의 보혈 능력있도다....주님의 보혈 나를 덮으사..." 하며 따라부른다. "내가 깔깔 웃으며 빈 이 찬양 알아!" 했더니 "엄마가 요즘 킁켜놓고 자주 불러서 나도 모르게 외워졌나봐.."하며 환하게 웃는다. "아~그래 은빈아 오늘 성막기도 함께할래. 하다 졸리면 자도 괜찮으니까 엄마 옆에 있으면 되는데" "알았어 얼른 씻고 들어올께" 하고는 방으로 나간다.

몇일전 요즘 성막기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은빈이가 불쑥 "엄마 진짜~ 나는 내 영은~ 내 영은 안 데리고 다녔어? 나도 데리고 다니지.." 하며 덤석 끌어 안는다.

"우리 은빈도 데리고 다녔지"

"주님이 뭐래"

"주님이 은빈이 너무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요즘 은빈이가 주님과 사랑을 안해서 슬프신가봐... 은빈이는 어떻게 생각해"

"알고있어 ~알았어~나도 느껴~"

"이제 성막기도 하면 좋겠다. 은빈이가 한다고 했잖아~ 엄마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마음의 준비가 끝날까?"

씨익~ 미소만 남가고 슬쩍 방으로 들어갔었다. ^^ 그러더니 감동이 왔나보다. 할렐루야~~ 씻고 들어와서 옆에 앉는다.

성막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때 '아궁~ 채팅할때 반장님께 은빈이도 함께 한다고 얘기할걸~~' 하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장님이 "늘샘님 할말 없으세요~" 하는거다. 얼른 채팅창에 '은빈이랑 함께해요~' 라고 적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막기도가 시작되었다. 은빈이를 신경쓰느라 온전한 집중은 하지 못했다. 영으로 은빈이 손을 잡고 함께했다. 은빈이가 반장님의

인도를 따라가고는 있는데 자리를 가끔씩 바꿔앉는다. 애쓰는감이 느껴진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집중할수 있도록 계속 선포를 했다. 자기 기도가 끝나면 반장님의 기도소리에 아멘으로 받는다.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을 초청하는데 큰소리로 아멘~한다. 분향단에서 큰소리로 방언을 한다.[방언기도를 좋아한다. 그렇다고 늘 열심히 하는건 아님^^]

시간이 지나면서 방언소리가 가끔 멈춘다. 소리도 작아진다. 그러더니 살짝 코를 고는듯 하면서 다시 작은방언~~ 아궁~ 우리딸 앉아서 자다 깨다 하나 보다. 주여~~ ^^

그래도 감사하다. 주님의 보혈을 뿌린다. 반장님이 방언찬양을 하면서 대언을 한다. 반장님의 방언찬양이 은빈이가 드리는거라고~~ 그리고 계속 대언하신다.

은빈이 어느새 그 대언의 소리에 아멘~아멘~아멘~ 하며 통곡한다. 나도 함께 흘러 내리는 눈물을 멈출수가 없다. 언약궤에서 반장님의 인도를 따르고...

기도가 끝나후 은빈이에게 물었다.

"어땠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 잠깐씩 즐기도 했어"

"그럴수 있어 그래도 끝가지 인도 받았잖아 엄마는 은빈이 중간에 잘줄 알았어~"

웃음^^

"아까 왜 울었어?"

"으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셔서 너무 고마웠어... 기도하면서도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주님앞에 잘한것도 없는데 나를 계획하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한다고해서.."

은빈이 눈가가 축축해진다.

"엄마! 물두멍에서 우물이 있는데 깊은우물이였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수영했어."

주님~주님~ 감사합니다.

은빈이가 반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한다. 이것저것 묻는다. 언약궤에서 느낀것도~ 아하~네~ 하며 통화를 한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좋아한다 [내용은 적지말란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의 달콤한 교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성일지를 작성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성막기도를 사랑샘님의 인도로 했습니다. 워킹위드바이블을 소개 받으지도 불과 몇일 안됐고 인터넷과 가깝게 지내지 않고 산지라 모든것이 얼떨떨 했지만 오랜동안 내안에 사모해왔던 마음과, 예수님을 통해 저에게 강권하셨다던 성령님으로 힘입어 빠른 시일안에 많은 글들을 은혜로 읽었고, 또 4차 성막기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 살고 있고, 남편은 목회자입니다. 미국에서 산지는 17년째이고, 뉴욕에서 남편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어느 계기에 “네가 교인들을 가르쳐 전도는 하게 했으나 네가 직접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케 한적이 있더냐?”하는 마음의 소리를 강하게 듣고 모든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명언(?)처럼, 개척교회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처음에 함께 교회를 시작하자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리고 가진것도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 가지고 내려왔더랬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용기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체험하면서....

사역은 시작되었고, 전도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흘렀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사역을 당분간 쉬고 있

습니다. 이정애 사모님의 영성일지를 읽으면서 덴버에서의 사역 간증이 참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맨 땅의 헤딩' 인지라 저희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일을 해야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 실패(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 자신도 싫지만 달리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네요)의 원인을 이래저래 생각해 보았고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결혼 3년전 예수님을 만나 그저 하나님이 좋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 있을까만 생각하던중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 하나만으로 그저 감사하며 결혼을 결정했지요.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남편이 공부하고 있던 미국 신학대학원 기숙사로 살림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사모로서의 강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니,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주 많이 훈련받으셔서 준비되어있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은사를 많이 가지고 계신) 사모님들을 보면 기가 죽을 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내세우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 버텨왔습니다.

방언을 7~8년전쯤 받았지만, 다른 분들이 꿈 얘기나 환상 얘기를 할때면 저는 '왜 나에겐 하나님께서 그런것을 안주실까' 생각하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하면서 그저 막연히 사모하는 맘을 가졌습니다.

워킹위드바이블을 알게되면서 조금 희미하던것들이 선명해진다

고 할까요? 언젠가 부터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때 손바닥이 시작되는 부위가 뜨거워지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주 찬 성질이라 항상 손,발이 차가운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걸 언젠가 우연하게 알게되었지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언약궤안에 들어가서의 기도시간에) 제 팔이 움직이려는 느낌을 받았구요. 그래서 한번은 그 느낌에 그저 몸을 맡겨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더니 아주 천천히 팔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런 현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지라 그저 신기하다 생각만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성막기도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이곳의 mp3로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언약궤안에서 기도하는데 입이 실룩실룩 거리더니 입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 전에 이다윗 목사님의 글을 읽었던 터라 당황했지만 그대로 내몸을 맡긴채 기다렸고, 입이 한동안 어느 모양으로 굳어져서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여쭙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아주 많이 성급한거는 아는데요.... 저는 인도하시는데로 그림을 그려보는 상상만 할뿐이지 구름도 안보이고, 빛도 안보이고, 불도 못 느끼네요. 그리고.... 왜 저는 성령님의 음성이 안들릴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소리가 아니라) “ 네가 그동안 너무나 세상의

잡다한 정보들로 네 귀를 채워서 내 목소리가 안들린단다”하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그래서 얼른 회개를 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두번 더 mp3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눈에 띄는 체험은 없었고, 어제 첫 4차 성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조바심을 내지말것, 그저 내가 정결케 되기만을 노력하며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것, 주님께만 초점을 둘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은혜스런 성막 기도는 끝났고 (아무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남은채 자리를 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미 끝마치는 기도도 올렸고 몸도 다시 움직인 상태) 마음에 방언으로 기도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시 얹어 방언 기도를 잔잔히 드렸고, 회개해야할 나의 죄(생각지도 못했던)가 갑자기 생각나서 회개를 했는데... 몸에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리는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팔이 움직이려고 꿈지락거리기 시작하고, 첫날 경험했던것 같이 한쪽 입이 실룩실룩거리더니 입꼬리가 마구마구 올라가며 입이 찢어져라 웃는 모습을 하고있는겁니다. 그런데 순간 나도 마음속으로 웃게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 말을 거는 내 모습. 아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내 영은 그분과 아주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는걸 알수있었어요.

심하게 웃다가 갑자기 화난사람처럼 입꼬리가 내려가다가 다시 찢어져라 웃게 하시고... 그러다 목이 돌아가고 팔이 움직이고, 하도 오랜시간 그러고 있어서 '성령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했더니 나를 앉은 자세에서 뒤로 눕히시더라구요. 이 모든 움직임이 저에게

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출근준비하고 일을 해야하는게 겁이나서 '성령님, 이제 저 자야되요.' 하면서 사랑스런 투정도 부려보고.... 겨우 정리를 하고 일어나보니 두시간이 후딱 지났더라구요. 제 침대에 누웠지만 감동은 계속되었고 자야하는데 금방 다시 손바닥은 화끈 거리고 좀 있다가 몸의 이곳 저곳이 꿈뜰꿈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 안에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사 성령님이 내 안 모든곳을 돌아 다니시며 마치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새 집 구석 구석을 돌아다니며 문도 열어보고 모든것이 잘 작동하는지 만져도 보고 눌러도 보고 신이나서 마구 돌아다니는....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한없이 행복했고, 성령님께 '이제 다 성령님께예요. 내 몸 모든것이 성령님께니깐 이제 안심하시고 그만 돌아다니시고 저좀 자게 해주세요' 하는 행복한 투정을 부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지만 그리고도 한참동안 성령님이 stop안 하시고 돌아다니신걸 알아요. 한동안 깊은 잠을 못자고 내 몸의 어떠한 반응들에 몇번이나 살짝살짝 잠이 깬거든요.

.....참 긴 글을 썼습니다. 제게 역사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혼란스럽던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은 억수로 비가오는 가운데 운전대를 잡고 퇴근하는 차안에서, 몇년전 내게 주셨던 소명(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이 고스란히 제게 전이되었고,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하소서' 부르짖으며 한참을 오열했던)이 다시금 생생히 떠오르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굳게 붙드소서. 내가 주께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의 도우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반 훈련

성탄절 행사때문에 금요일을 울동찬양연습을 하였고 18일도 연습때문에 어수선하였다. 2시부터 4시까지 찬양연습하고 4~5시까지 성막기도를 하였는데, 아이들은 하나같이 성막기도를 하자고 했다. 재밌다는 것이다. 시간이 빨리간다는 것이다.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갔나 하면서 조금씩 놀래는 것을 알고 있긴했지만, 아이들은 이 기도의 순서를 즐거워하였다. 반복되는 기도훈련으로 아이들은 많이 자세가 잡혀갔다. 소란스러운 환경에도 기도훈련이라고 하면 제법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물론 세운 책임자를 항상 이용한다.

토요일 기도는 나만 혼자 뜨거웠던 것 같다. 주님의 눈물과,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뜨껴져서 눈물콧물 다 빼면서 기도하였는데 내가 기도에 집중하면 아이들이 기도하는지를 자세히 살펴 바로 잡아주는 훈련은 좀 어렵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좋았다.

그날 아이들은 특별한 일지를 낸 아이들이 없었다. 1학년들의 기도는 늘 뜨겁다. 아이들은 예배와 내리하는 훈련으로 많이 지쳐보였고 몇명의 아이들이 더 놀다 기도하면 안되냐고 했다. 조금의 시간을 더 주고.. 난 후.. 자의가 아닌 억지로 훈련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도 좋다고 했고 정말요..?? 대부분 임원단 아이들이 물어보더니 그래도 이대로 그냥 가버리는 것은 좀 마음이 걸렸는지.. 이

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나간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자반 아이들을 다 남았다는 사실이다. (애초에 임원단 아이들5명까지 포함해서 12제자반을 만들생각이 었지만, 자격이 되는 임원아이들도 성구5개, 십계명외우기, 새벽 기도5일하는 제자반 훈련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훈련하게 되었고 훈련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다. 요사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

1학년 제자반 아이들이 그럼 저희도 가도 되요..? 물어보는 것이다. 그 중에 성섭이란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길래..

“응~ 기도된다~”

“와~ 정말요~~”

“응~그런데 어딜갈건데?”

“엄마 계신곳이요(성가대실)~ 그래도 기도훈련은 받고 갈래요~”

“그건 안되는데~”

“왜요?”

“음.. 오늘 훈련이 6시까지잖아~ 그런데 기도는 5시까지란 말야,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나갈 수는 없어. 갈려면 지금 가고 아니면 6

시까지 훈련받고 가야해~! 알았지?”

(아주 짧은 시간 고민하더니)

“그래도 회개기도는 해야 하니까 해야죠..”

이러는 것이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정말..

성막기도로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성막기도 맨트를 얼마나 잘 따라서 하는지 모른다. 아멘도 잘하고, ㅎㅎ 암튼 나만 잘하면 될 것같은데....

부족한 이 몸 아이들 앞에 어찌서야할까.. 심히 고민이다..

멍텅구리 배도 움직입니다

내 나이 몇일 후면 50 입니다. 내 평생 (3년 전까지) 어려서부터 눈물을 흘려본 기억은 딱 3번 입니다. 그랬다고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은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면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설사 안 좋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하지 않는 성격 입니다. 어려서 돌맹이에 머리 맞아서 운 기억 ,등,성인이 되어서는 내 사랑하는 누님이 15년전에 돌아가셔서 눈물 흘렸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의가 강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던 내가 3년 전부터 울보가 됐습니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만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울음이 나와서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하고 가다가 차 옆으로 대고 눈물 닦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나나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 할때는 절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0년 11월 1일 새벽 6시 순수 반장님과 함께 성막기도를 하는데 번제단에 올라 서면서부터 울음이 터져서 등대까지 울며 기도 했습니다. 손을 펴서 위로향하게 하고 무릎위에 올려 놓았는데 양손 위에 책을 한권씩 올려 놓은것 처럼 묵직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을 초청하며 분향단에 도착해서 반장님이 방언기도를 시작 하시길래 방언기도를 따라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귀에 들려오는 쉬운말만 따라 읊조렸습니다.

거의 방언 기도가 끝나갈무렵, '아! 오늘도 나에게 방언은 안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러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끝까지 갑니다. 나 한번 붙잡으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러니 빨리 내게도 방언주시는게 좋으실겁니다!" 하고 있는데 반장님의 방언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이들던 리듬 같기도하고 너무 좋아서 듣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언 찬양을 모아서 찬양노래를 만들면 어떨까! 그럼 가사를 달려면 방언 통변을 해야 하는데! 작사, 작곡은 성령님! 너무너무 아름다울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휘와 작곡을 공부했거든요.

어쨌든 기도끝나고 아내에게 기도할때 손이 무거웠었다고 얘기하니까 축하한다고 해 주네요. 그것이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거라고요. 처음 영성일지 쓸 때 나는 멍텅구리 배 같다고 했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 합니다. 오늘얘기라고 시작했는데 벌써 1시가 넘어서 어제 얘기가 돼 버렸네요.

잘 자자 내 영아, 성령님과 함께! 꿈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여행하면 더 좋고~! -- 샬롬

주님과 함께한 성막기도 후기

번제단

검은 연기가 진하게 올라왔다.
나의 죄의 색깔을 주님을 알게 하셨다.

물두멍

그분이 나의 머리부터 정결의 물로 씻어주는데 반장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다.
주님이 한분한분 씻겨주고 계시다고
그분의 손길이 참다정하고 부드러웠다
세족하시던 예수님이 이런손길이셨을 것 같다.

진설병

반장님이 주목하라고 보니 성경책이 떡상위에 올려져있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 그러면서 마7:7을 주셨다. 인생의 모든문제 부터 시작해서 좋은것 즉 성령까지 하나님은 말씀안에서 당신에게 나아와 구하기를 원하셨고 성경은 모든것을 구하고 바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나의 모든문제가 이 말씀안에 있으리라.

대적기도와 보혈기도 : 주님이 주신권세로 강력하게 외쳤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영과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아. 불순종의 아들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너희를 완전히 묶고 파쇄하고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다. 대물림의 영, 저주의 영, 영적쓰뿌리, 모든종류의 영들에게 보혈로 바르고 덮고 뿌리고,

주님은 내삶전영역에 그분의 보혈을 뿌리길 원했고, 의지하길 원했다. 주님내안에 근성의 뿌리들을 뽑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소서...

분향단

방언이 계속 바뀐다. 강하고 빠르게 하라 하신다. 주님이 주신 첫 음성: "내가 흐뭇하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흐뭇하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체험... 들어가자마자 불난줄 알았다. 가쪽으로 뺄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서 영광의 구름과 뒤덮여있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차오르는데 실체를 옆에서 보는 것처럼 잔잔히 물결이 치면서 바닥부터 차오른 것이 보였다. 점점 차오른다. 완전히 잠겨서 나를 보는데 내가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있는데 반장님 왈, 지금 하얀 세마포옷으로 우리의 옷이 바뀌었다고 확증해주신다. 반장님과 많은부분 같은 체험을 한다.

언약궤 안에서 나를 보고 웃고 계신 주님을 본다. 그러면 반장님도 주님을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신다고 말한다. 물론 보는 부분이 달라서인지 틀린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다. 또한 반장님의 인도를 따라 들어가보면 그림이 그려지고 그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것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취해진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에 익숙한 것 처럼....^^

언약궤안에서 십계명안에서 손을 넣고 두루마리를 빼고 펴봤는데 나는 말씀이 씩여져 있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레 19:2절 말씀이다.

내가 2년전 신대원기숙사에서 자고 있는데 영혼이 분리가 된적이 있다. 내가 내영으로 나를 바로보고 있었고. 나는 침대옆 공중에 떠서 어떤의자에 앉아있었다. 근데 어떤존재가 의자바로뒤에 같이 앉아있는것이 아닌가! 순간 무서웠다. 마귀일수도 혹은 예수님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플라스틱의자였는데 팔걸이 부분이 ㄱ자로 꺾여서 내 배를 짊끼고 누르고 있었다. 나는 이것때문에 아프고 불편했기 때문에 뒤에있는 존재에게 이것을 떠달라고 했다. 그분이 예수님이면 창조적인 기적으로 플라스틱을 곧바로 펼수있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런데 그분이 큰손으로 그것을

펴주었다.

나는 그분을 볼수 없어지만 그분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 주일이 거룩한것 처럼 니 삶이 거룩해지길 원한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7년동안 비몽사몽간에 영이 팽분리되는 느낌이 총5번이 있다. 그때마다 말씀이 주어진다. 나를 꾸짖을 때는 동굴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세상의 존재가 그분과 나만있는 것같은 경외감과 엄청난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 음성은 바로 귀옆에다 대고 "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한번은 마치 맑은 물소리 같은 엄청 다른세계의 목소리랄까? 천사의 소리 정도? 음성이 귓가에 바로들어온다.

다신 지성소로 돌아가자... 반장님이 나가시고... 예수님의 거인같은 등에 업혀 하늘을 날았다. 평야를 타고 산을 오르는데 멀리서 집회장소인냥 평야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그중 상단을 보니 어떤사람이 큰 녹색깃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수있었다. 시점은 멀리서 클로즈업된 시점이다.

그리고 또 집중하는데 내가 우주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구를 바라보라고 한다. 근데 처음에는 안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검은색이라 우주색깔과 같아서 혼동되었던것이다. 주님은 그것은 어둠의 영이고 어둠으로 지구가 덮여있는거라 말씀하신다. 근데 반딧불처럼 곳곳

에 불빛이 세어나오기는 했다. 근데 이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생수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캄캄함과 어두움이 세상을 덮는...이 세상... 마지막때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회복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화같은 모습으로 하늘이 정말 파랗고 하얀 장면으로 점점 바뀌어갔다. 아름다운 자연으로 한부분을 보았다.

할렐루야...~!

"너는 얼마나 나를 갈망하느냐? 나는 너의 전부이니라.

너는 얼마나 나를 배고파 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너는 얼마나 나를 목말라 하느냐? 나는 니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요 생수의 근원이니라."

"니 삶에 내 이름을 계시하며 나의 품성과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니 안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망이 끊이지 않는 정결한 샘이 될 것이며...

나의 심장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심장으로 사모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영의 사랑을 내가 가르칠 것이고 나의 사랑을 너는 배우고 풀어놓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구절이 먼저 들어오는 눈이 열릴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신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 그리고 예언적인
중보가 이제는 교회의 체질이 될 것이고,

나의 감추어진 맛나를 맛보게 될 것이며,

시대를 볼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계시적인 독수리의 눈을 너에
게 줄것이다."

"한 손에는 진리의 회복과 한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강력
한 의의무기와 하늘에서 전략들이 너에게 부여될 것이다."

"집중하라.

주목하라.

전진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육과 혼으로 고백하지 말고 영으로 고백하라."

주님.....

내가 이제는 열어지기 원합니다

영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영의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이룬 말이 영이요...생명이라...

위엿 것을 찾으라.

위엿 것을 생각하라.

영을 좇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시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

반장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 오직 주님께만 바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 sheila 방장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성막기도시간에 강하고 담대한 모세의 자신감 넘치는 인도자의 사명으로 반원들을 영광체험까지 잘 배태워 가게 하시기를 빌었다. 오늘 새벽 기도시간에 워킹워드바이블을 기도 많이 시키시고, 또 우리 반장님, 반원들 기도를 시키시며, 다른반에는 이다윗 목사님이 참석하시던데 우리 반장님 힘을 주실 목사님은 우리반에 언제 오시는 겁니까? 살짝 여쭈었을 때, '오늘이다' 하시길래, 할렐루야~! 했다. perfect 타이밍^^

성막기도시간이 다 되어, 다윗목사님이 계신 모습을 보며, 우리 방장님 오늘 충만하심 옷 입겠다 생각하며, 210장 '내 죄사함 받으소서' 부르는데 몸과 마음에서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일까?

성막문앞에서 생명되시고, 왕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함으로 문을 쳐다보는 데 와~성막문이 어찌나 큰지, 이게 과연 열릴까? 걱정될 정도로 앞이 캄캄했는데, 문은 열리고 주님과 각양각종 동물들?(노아의 방주안으로 들어갔을 법한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마중오셨다. 주님 손잡고 번제단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늘은 그 싹을 잘라 완전히 태움받기를 기도하며 올랐다.

번제단에서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도 뼈뼌 자라나는 이 것들을 패대기를 쳐대며 발악묵상을 하며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눈물로

서 호소하니, 하늘에서 반장님은 불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쳐다보니, 무슨 하얀 상자가 내려온다? 그래서 그 상자가 내 가슴에 안착되어 자세히 보니 그건 내 자아, 정욕된 모든 것들, 생각들, 탐욕과 시기 질투, 판단들, 이기심들을 집어넣을 '관' 이었다. 그것들이 다 태워져 그 안에 집어넣어져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래, 이제됐어! 했다.

물두멍앞에 서서 회개의 영을 불러 내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를 하며, 주님 씻겨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크신 손이 발을 씻겨주시고, 손을 씻겨 주시며 두팔로 안아주심을 느꼈다. 그런데 손가락 끝이 불같이 타오르는 듯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게 불이 입혔나? 생각하며 기뻐다.

진설병에서는 간구, 선포, 감사로써 워킹워드바이블, 우리반, 교회, 가정등의 순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주님^^

분향단에서 방언을 할 때, 기도의 영을 부으시사 누구를 기도할까요? 하니, 김도현집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진설병에서 한 기도가 모자랐나? 싶어 열심히 방언으로 주님의 영광과 합하여 기도드리는데, 환상이 보였다. 말하면 웃길텐데..보이는데 어찌겠나..^^

김도현집사님을 가운데 두고, 양팔을 잡고, 우리반원들과 상대사단들과의(시커만것들) 줄다리기 대회가 열렸다.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하는데 김도현집사님이 괴로워 죽겠다시

는 얼굴이셨다. 그런데, 순간 김도현집사님의 몸에 주님의 몸과 합하여 투명한 비닐같은 보호막이 채워지더니, 우리쪽으로 줄이 주룩룩 밀려오더니, 우리가 다 같이 승리의 합성을 주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 광경이 끝나니, 방장님께서 방언찬양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영서를 쓰라고 하셔서 열심히 한장남짓 쓰고 있다가, 방언찬양을 듣고 있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천상의 소리였음을 고백한다. 방장님의 방언찬양이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다. 주님 사랑합니다~주님 감사합니다~하시며..^^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방언찬양을 들으며 영서를 통변해달라고 떼를 쓴다. 첫 줄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 줄은 어떤 뜻이에요? 주님?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함입니다" 둘째 줄은요? "....."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역시 나에게겐 힘이 든 것일까? 살짝 고민들어갈려는데 방장님의 소리가 들린다.

지성소로 들어가신다. 속죄소에서 예수님의 피가 빛이 되어 내 몸안으로 들어오신다. 세상의 누구피가 내 몸에 묻어지기라도 하면 기분더럽고 찝찝할 텐데, 우리주님의 피는 어찌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지.. 언약궤안으로 들어가라시는 방장님을 따라 들어가니 3가지 돌판, 지팡이, 만나가 있다. 그것들을 다 취하며 기뻐하고 사랑으로 품는다. 오늘은 반장님을 통한 주님의 사랑이 꽃이 피어 내가 취함을 얻는다. 그 사랑으로 반장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 주라고 하는데, 안아만 쥐도 그 사랑으로 새 하얗게되고, 기쁨이 된다. 역시 우리주님의 사랑은 최고의 영향력이다. 이 사랑으로

죽은자도 살아 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장님이 물가를 건너 푸른 들판에서 놀다가 춤을 추며 놀라하시며 사라지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을 날아 어떤 계곡에 도착했다. 참 맑은 곳이었다. 주님께서서는 " 이 물을 마셔라. 이 물은 갈라디아서 2장20절 물이다" (그런 물이 다 있나? ㅎㅎ) 믿음으로 취하고 그 물을 마시며 주님과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리고 진설병에서부터 내 머리속에서 짝짝 흐른 기름부으심이 끝나고서도 계속 흘러 기분이 짜지게 좋았다. 주님의 기름부으심을 우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모두 통로가 되어 흘러보냅니다. 쿵쿵쿵!

할렐루야!!

아들의 첫 성막기도 일지

초등학교 5학년 아들(한국나이-11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주고, 기도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에 기억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막 3D도 보여주었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또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전에 성막기도 하고 싶다고 옷장에 들어갔습니다. 분향단 앞에서 방언기도 하다가 조용하다 싶더니, 다시 방언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후에 나와서 저에게 달려와서 하는 얘기, 기도를 시작하면서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엄청 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향단 기도하면서 자신이 아주 평화로워졌구요.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을 초청한 후 방언기도를 하고 속죄소에 들어가려 하는데, 성령님이 속죄소에 들어가기에 방언이 부족하다 하셔서, 다시 방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다가 손가락을 움직여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속죄소에서 보혈을 뿌렸는데, 자신이 보혈에 적셔진 체로 언약궤로 빨리 들어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보좌에 앉아서 계시는데, 그 주위는 구름으로 뒤덮여 있으셔서 얼굴을 보지는 못했답니다. 그 구름 사이로 번개처럼 찌지직 하는 것이 보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이름을 부르시며 "뒤를 보아라." 하셔서 뒤를 보니, 빛의 구멍이 보였대요.

"들어가라" 들어가니, 아주 반짝거리고 멋진 전신 갑주가 있더라고요.

"입어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입는데, 본인이 입고 있는 낡은 전신갑주가 눈에 조금 보였대요. (홈집이 약간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새 전신갑주는 여러 보석이 박혀있고 엄청 큰 방패가 있었으며, (이 부분을 얼마나 멋진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빼어 보니, 칼은 조금 짧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뒤를 보아라" 하셔서 뒤를 보니, 이번에는 검은 구멍이 있었대요. "들어가라", 들어가니 이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닌텐도게임기, 돈, 트로피 가 있더라고요. 그 칼로 잘라버렸더니, 모두 두 동강이가 나서 둥둥 떠 있었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이동..

다섯달 전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2년전 부터 혈압으로 급격히 좋아지지 않은 몸에 어머니께서 외출하신 사이 화장실을 가시다 그곳에서 넘어져서 신음하는걸 나중에 오신 어머니가 급히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만 하루 반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놀란 소식의 전화를 여동생에게 받고 급히 둘째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큰 딸 지우는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갔다가 다음 선교지인 한국의 장애인을 돕는 선교의 마지막날 외할아버지의 사고가 있어 한국에 이미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삼일전 부터... 방언기도가 끊이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사고소식을 듣고 다음날 아침 떠나기 전까지 밤을 새워 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전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거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되서 아빠의 죄를 무조건 생각을 주시는데로 대신 회개 하였습니다. 혼수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 다시 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제 기도를 평생일대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행기안에서 기도하는 중... 갑자기 기도가 딱..중단되는 경험

을 했습니다. 전 이때가 아빠의 영이 육신에서 떠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아빠가 환히 웃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해주셨으면..가시는 따뜻한 손을 잡아볼 수 있었겠지만..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함께 돌아가신걸 이미 알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일이 있는지 꼭 다섯달이 지난 오늘 입니다. 오늘의 성막기도는 잡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이부분 훈련이 어느정도 되어진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집중하면 또 은혜가 있길..반복하였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청색의 피가 되어 저의 이마를 들렸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보라색의 피가 되어 너의 얼굴을 들렸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빨간 피가 되어 저의 가슴을 들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얀 피가 되서 저의 배를 들렸습니다..

성막의 문이 열리고 번제단에 올라 저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거룩한 산 제사로 받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두명의 회개와..진설병에서 (가장 잡음이 심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집중하시고 열심히 간구하시는 반장님의 기도에 아멘.! 하고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 속에 알지 못하는 어둠의 깊은 곳까지 비추어 드리내시길 간구하며 분향단에서 방언을 기도하였습니다... 계속된 잡음이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방언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가사없이 입을 열지 않고 음으로 올려드리는데...

전 어느샌가... 주님과 한국의 경기도 엄마집에 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몇달 전 남편을 잃고 아직 그 아픔이 가시지 않은 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셨습니다. "내가 네 곁에 있노라.."하셨습니다. 전 곁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다음으로 남동생에게 갔습니다. 주님은 남동생을 보며 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저도 같이 영영 울었습니다. 믿지 않는 재부에게 갔습니다. 그 아들의 단단한 불신의 덩어리를 들기도 무거운 커다란 망치로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조카들에게 주님은 쓰다듬으시며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큰딸이 공부하는 학교에 갔습니다. 자유로운듯한 교실 분위기가 보이는데... 주님은 딸에게 가서 안수하셨습니다. 지우는 뒤로 슬쩍 돌아보더니 이내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작은딸의 학교에 갔습니다. 책상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아이에게 주님은 안수 하셨습니다. 제니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었던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저를.. 아주 오래된 과거로 보내주셨습니다. 6살정도의 제 모습입니다.. 아빠랑 나들이 간다고 엄마는 제게 하얀 스타킹과 파란 멜빵이 달린 치마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방파제가 있는 그곳에서..

미역이 있는 그곳에서.. 아빠랑 저는 손을잡고 행복해 하였습니다. 어렸을적..전 실제 아빠랑 바닷가를 간혹 산책하곤 했습니다. 전...이 장면에서 엉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네 아빠와 내가 함께 있노라...이제 그 집을 완전히 버리라.." 전, 울다가 웃었습니다.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속죄소에서 반장님께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든 확증을 꼭 주시는 것은 그룹으로 하는 성막기도의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울다 웃으며 들어간.. 언약궤에서.. 종이로만든 크리스마스때 다는 종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저게 뭔가요?" 하고 묻는데... 그 종위에 그물망에 아주 많은 선물들이 포장되어 한가득 팔려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서 큰 꾸러미들이 떨어졌습니다. 하나씩 여는데.. '격려, 온화'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더니...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들이 나왔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 글자들이 저를 가운데 놓고 원을 만들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어?...그런데, 오래참음이 없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자마자..주님께서 저쪽에서 오래참음을 들고 오시더니 제게 주셨습니다. 전 그것을 가슴이 꼭 심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내가 네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너무 사랑스러

운 딸아."

너무 충만하고 은혜로운 성막기도였습니다. 집중의 훈련으로
잡음이 있었지만, 주님께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막기도를
하면 할 수록 내속에 것들이 아주 미세한 것 까지 더 잘보이고...
주님께서 저를 향한 사랑을 알아가며...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
은 맘이 솟아오름을 매순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님 영광 받으소서...

잊혀진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보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찬 193장으로 성막기도는 시작되었다....

오늘 따라 성막문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게 들어갔다...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데 자아의죽음에 대하여 자꾸 말씀하게 하신다...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를 열심히 태운다. 물두멍에서 회개하는데 물두멍 물이 피로 변한다...예수님께서 반원들 머리에 한사람, 한사람 그 피를 부어 주신다..

진실병에서 기도하는데 가까이님의 딸을 아들인줄 알고 두 형제라고 함...앗, 나의 실수...(예쁘게 봐주세요) 분향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줄지어 내려온다.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서더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담아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더니 또 내려와서 또 담아간다...

와우!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네.

계 8: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는 주님께 방언찬양으로 화답한다. 하얀 구름위에 예수님도 계시고 나도 구름을 타고 있었다.

속죄소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데... 내 앞에 12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굳은 표정으로 서있다.(실제로 서있는것 같은 선명한 모습) 성령님께서 "나" 라고 하신다....그 아이에게 피를 붓는데...나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는줄 알았다. 내가 인도자만 아니었으면 주저 앉아서 엉엉 울었을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때 엄마가 재혼을 하셨다. 어린 나에게는 말 할 수 없는 수치였고 괴로움이었다... 집에서는 말이 없었고 오직 교회가 나의 피난처였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갔던 것이 아니라. 나를 숨기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다. 여름성경학교때가 되면 교회에서 잠을 자며 성경학교에 참석했다..

새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셔서 몰래 교회를 다녔다. 교회 다녀오면 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웠다. 그래도 나의 돌파구는 오직 교회뿐이었다.

성장하여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더 이상 교회 가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나에게는 세상의 즐거움이 좋은 줄 몰랐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셨다... 나는 그때 상처가 모두 치유된줄 알았는데...

처녀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새벽기도에 가서 부모님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이 통통부어 온다. 엄마는 집에서 열심히 '남녀호랭개교'의 주문(?)을 외운다...나는 열심히 말을 시킨다. 제는 꼭 내가 기도할때면 말을 시켜....주문이지 기도인가.....

그런 엄마를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지금은 나의 든든한 기도군

사다. 어제도 잠깐 한국에 통화 했는데 기도하시다가 전화를 받으셨단다.. 할렐루야! 아버지도 구원받으시고 돌아가시기전 환상이 열려 천사들이 아버지를 데리러 온것을 보셨다.... 예수의 피를 붓는데 그 아이가 웃는다....나의 잊혀진 상처도 주님은 치유하셨다...

나의 어려서의 어려운 환경과 재혼에 대한 아픔은 지금 나의 사역에 밑바탕이 된다.(이것은 나를 향하신 혼련이었다) 어려운 가정을 이해할 수 있고...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힘들어 할때 나의 이야기를 해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는 남편 만나게 해 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썩 고구마를 주셨지만 지금은 목회의 길을 가고 있다. 할렐루야!

침착해 지려고 노력했다..... 언약궤 뚜껑을 여는데 빛과 함께 "사랑해"라는 글씨가 계속 올라온다... 돌판에선가 성령님의 대언을 전하였다. 잘 기억이 안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 내 주위에 천군천사들이 일하고 있단다. 승리하거라. 일어나거라. 나만보고 일어나라”

우리의 문제를 사단의 공격으로 부터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었다.... 썩난 지팡이에선 한가지의 소망을 말씀하라 하셨고... 믿음으로 드린 그 소망이 실상으로 이루어 진다고 하신다. 만나항아리를 들여다 보라 하시는데 맑은 생수가 있었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했고.. 그 생수는 영혼을 살린다고 하신다. 그 물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 주라고 하심... 나는 언니와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하늘 구름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평--안--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셨다.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운동장으로 갔다.(더 이상 말을 못함...웃겨서) 주님은 나에게 릴레이 달리기를 하자고 하신다. ㅎㅎㅎㅎㅎㅎ 웃음을 참을수가 없어서 마이크 소리를 완전히 줄여 놓고 마음껏 웃었다. 울고 있는 나를 위로 하시려 주님께서는 깜짝 이벤트를 하셨나 보다...

주님은 나를 보혈로 깨끗이 씻기셨을 뿐 아니라 나의 잊혀진 상처(어린시절의) 까지도 깨끗게 치유해 주셨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다 잊고 있었는데....이제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것...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이-----만큼----할렐루야!

저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워킹위드바이블에 가입하여 목사님의 영성 있는 글들을 읽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글을 읽은 후부터 저두 성막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것은 저는 원래 손이 차갑고 시려서 기도할때도 장갑을 끼고 하거나 무릎담요 밑으로 손을 넣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드릴때 손을 높이 올리고 드릴때도 있고 또 가슴높이만큼 올려 펴서 할때도, 그리고 무릎위에서 펼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할때 손바닥과 손끝이 전기가 오는것 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을 항상 있었습니다. 어제는 찬송을 몇 곡 올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장갑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장갑을 벗고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벗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보혈의 피로 7번을 뿌리고 머리, 어깨, 가슴, 배, 성기, 무릎에도 예수보혈의 피를 뿌렸습니다. 번제단에서 내 모든 육신을 불사르고 물두멍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다른때 같으면 손이 차가워야 되는데 점점 따뜻해 지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지성소에서 언약궤앞에서까지 감사로 기도를 마칠때까지 손은 여전히 따뜻

했습니다. 오늘도 장갑을 끼지 않고 기도 해도 손이 하나도 시리지 않고 어제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막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5차 성막기도를 하면서는 더욱 더 대언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신다. 그 전과는 다름을 본다. 예를 들어 기도중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면서 그분들의 필요를 기름부으심을 본다.

한번은 언약궤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인데 처음엔 예수님의 왼손을 내 허리에 대고 걸으시는것 같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손에서 불이 나오고 있는것이 아닌가!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허리를 치유하고 있는것이다."

나는 그것이 나만의 치유가 아니라 반원 한분 한분 모두에게 치유의 불이 나가고 있음을 말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오른손을 내 가슴에 대신다. 주님,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있다."하고 말씀 하신다. 즉시 대언을 했다. 육과 마음을 치유 하시는 것이었다.

그다음 성막기도때는 치유의 기름을 부우신다. 받으라고.....뜨거움이 온다. 손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어느분은 뒤로 넘어갈뻔했다고 하신다.(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에 대한 환상이 내게 보이

는데 이분이 누워 있는 아이의 배에 손을 올려 놓은것이 보인다. 아! 이분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어서 개인적인것을 대언하지 못했다.

그 다음 성막기도때는 강력한 임재에서 한분 한분 방언을 통해서 각각 예언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나갔다.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때론 하늘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가는기도들이 있다. 강력하게 부르짖어라. 강력한 기도로 막고 있는 세력을 뚫고 올려지도록 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너희는 영적 강한 군사다. 나의 아름다운 신부다. 나를 위해 영적 자녀들을 낳아 줄 수 있겠니? 또 너희들의 달란트엔 먼지가 푸욱 쌓여 있다. 감춰 놓고 먼지끼 달란트를 끄집어 내어 사용해라 등등...

지금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중에 반원 한분 한분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걸 알았다. 내게 아이의 배 위에 손을 얹은 환상을 보여준 그분은 그날 아이가 아팠다고 하신다. 그러나 그날 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 말씀을 못해 드렸다.

이틀후 성막기도후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서 오늘은 학교를 못갔다고 하신다. 그래서 그분께 아이의 배위에 손을 얹고 기도 하시라고 말씀 드렸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유해 주실려고 보여 주셨던것이 아니냐고... 그분에게 그동안 주셨던 메세지와 영적인 것들을 나눴다. 앞으로도 함께 나눔으로써 알게 하실것들이 있음을 본다. 난 알지 못했지만 그동안

내게 성막기도를 통해 그 분이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알게 하신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 더 중보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는것이 힘이 있고 실질적인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한 서로가 날과 날을 세우시길 원하심을 본다. 할렐루야~~~

우리반원 한분 한분이 정말 한식구 같다. 서로 염려해 주며, 기도해 주고, 잘되길 바라고... 이래서 난 이분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느낀다. 책을 권면해 주고, 말씀을 보내 주면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각각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접 깨닫게 하셔서 삶속에서 세가지의 육적치유가 있게 하시고 메리힐님의 인도 비자문제도 보통은 6개월이었는데 이번엔 1년으로 영사가 직접 해결해 주시니 더욱 감사하다.

기도 문제가 있으면 얼른 쪽지로 기도 부탁하고 좋은일 있으면 얼른 반장에게 말해주고 싶어 안달하는 우리반원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이쁘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뻐 하실까!

주님, 이분들을 축복 합니다. 사랑 합니다. 감사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언약궤기도

초판발행 2011. 3. 31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도서출판 예찬사
등 록 제302-2004-000056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인예수교정교회 개역총회에서 인준한 신학교로서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강도사교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4학기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국제성경연구원의 회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버전 있음)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